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앙 위 원 회 기 관 지 당 중 로 동

제24348호】 주체102(2013) 년 10월 27일 (일요일) 제300호 【루계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 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우 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 정신에 의하여 조국의 면모 는 날을 따라 변모되여가고 있습니다. 》

세포등판건설에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

계획된 도로, 방목도로 90%이상 건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인공풀판과 자연풀판구역에 계 획된 도로, 방목도로를 90%이 상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어 풀 먹는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방 목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 련해나가고있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도로, 방목도로건설을 전망성있 게 내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 들을 토의하였다. 그리고 현지 에 나가 집짐승들의 무리규모와 축산물생산량을 따져보고 설계 의 요구대로 도로, 방목도로건 설을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도로, 방목도로건설 장 어디서나 혁신의 불길이 세 차게 타번졌다.

인민보안부돌격대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교통의 안전성 과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 로건설을 질적으로 내밀어 성과 를 거두었다. 일군들은 도로건 설을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구 체적인 전투계획을 세우고 륜전 기재들을 총집중하도록 면밀한 대책들을 따라세웠다.특히 방 대한 량의 토량과 막돌, 혼석을 처리하며 도로건설을 내밀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로반형성과 수송을 동시에 내밀기 위한 전 투조직을 짜고들었다.결과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건설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놓기 위해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들은 제정신이 제일이고 제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안고 풀 판조성과 땅다루기를 계속 힘있

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수km의 도로건설을 해제끼는 혁 신을 일으켰다.

로건설장에서도 총공격전이 힘 있게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도로, 방목도로 건설을 남먼저 끝냈다.

축산기지관리운영을 위한 도

부대지휘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부대호상간 사회주의경 쟁을 조직하여 일정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 휘를 패기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전투현장에 나가 지형조건과 사 양관리조건에 맞게 방목도로건 설을 질적으로 하기 위한 시공지 도에 힘을 넣었다. 결과 자연풀 판에 230여km의 방목도로를

가을갈이를 끝낸

평강군사단의 성, 중앙기관돌 격대,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 격대원들이 기계화의 동음을 높 이 울리며 매일 많은 면적의 가 을갈이를 해제끼고있다.결과 맡겨진 가을갈이를 끝낸 단위들 이 날마다 계속 늘어나고있다.

사단지휘부의 일군들이 들끓 는 현장을 하나씩 맡고나가 가 을갈이를 제기일내에 무조건 끝 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갔다. 특히 이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뜨락또르들의 리용

대 규 모 축 산 기 지 건 설 을 계 속

한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그

리하여 속도와 질이 철저히 보장

되는 가운데 려단에서는 하루 최

고 근 2 0정보의 가을갈이를 진

들에 일별,주별전투과제를 정

확히 주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도록 하였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

하여 가을갈이전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한층 높여

주었다. 결과 매일 많은 면적의

가을갈이를 해제낀 려단에서는

지난 15일까지 맡겨진 전투과

제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위훈을

라선시려단에서는 일군들의

창조하였다.

다. 또한 대대별사회주의경쟁과

자강도려단에서는 모든 대대

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성, 최고재판소, 수매량 정성, 보건성, 상업성, 대성은행 돌격대를 비롯한 세포군사단의 많은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 로력을 집중하여 맡겨진 도로, 방목도로건설을 끝냈다.

평강군사단의 함경북도, 황해 남도, 남포시려단 일군들과 돌 격대원들이 연 40여km씩의 도 로, 방목도로건설을 힘있게 내 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려단들에서는 작업조건이 불 리하여 많은 품이 들지만 일군 들이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대오 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 로 도로, 방목도로건설을 내밀 어 맡겨진 전투과제를 100% 로 수행하였다.

이천군사단의 돌격대들에서 도 방목도로건설에서 혁신의 불 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사회과학원돌격대는 70 여km, 문화성, 출판지도국돌격 대들에서는 4 Okm이상씩의 방 목도로를 건설하여 계획을 수행 하였다.

단위들이 늘어난다

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갈이방법 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 다. 그리고 돌격대원들모두가 당면한 가을갈이전투에서 불굴 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 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 게 벌려나갔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 격대원들이 올해의 먹이풀판조 성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 하여 가을갈이를 질적으로 해나 갔다. 특히 려단일군들은 포전별 토양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

세포등판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고 먹이풀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완강한 실 이 마련되도록 가을갈이와 관련 천력, 남다른 이신작칙으로 하

> 가을갈이를 끝냈다.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며 5일동안에 50정보이 상을 갈아엎은 합영투자위원회

여 짧은 기간에 계획된 면적의

자연풀판면적의 0 천군사단에서 자연풀판면적 의 30%에 칡산을 조성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고있다. 사단지휘부일군들은 산이 많 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칡산 을 조성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 한 유훈이라는것을 돌격대원들 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어

돌격대에서도 지난 20일까지 맡겨진 가을갈이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힘 있 게

지금 가을갈이에서 앞장선 단 위들의 뒤를 남포시려단과 국가 자원개발성돌격대, 평양시와 평 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평 안북도려단들이 따라서고있다.

30%를 취산으로

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였 다. 그리고 해당 부문 과학자들 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필요한 기술지도서를 완성하여 그것을 모든 단위들에 즉시 내려보내였 다. 또한 보여주기사업과 기술전 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돌격대 원들모두가 칡산조성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정 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천지구의 자연지리적조 건과 자연풀판조성면적, 여기서 기르게 될 집짐승들의 종류와 마리수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면적을 정해주었다. 이런 빈틈없는 준비사업과 과학적인 작전에 따라 자연풀 판면적이 비교적 많은 송정, 장 동, 산지리지구들에서 칡산조 그들이 이 사업에서 애국적열정 성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게

> 되였다. 수도려객운수지도국돌격대에 서는 자연풀판구역에 많은 칡이 자라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 하여 칡넌출을 땅우로 뻗어나가 게 한 다음 마디들에 흙을 덮어 주는 방법을 적극 받아들인 결 과 짧은 기간에 수십정보의 칡

데 기초하여 단위별로 칡산조성

산을 조성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사회과학원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속도와 질을 다같 이 보장하면서 많은 면적의 칡산 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주 어진 작업조건을 구체적으로 따 져보고 일정계획을 바로세워 칡 산조성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칡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칡 산을 조성한 고려의학과학원돌 격대에서는 자연적으로 자란 칡 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책임적으 로 진행하여 잘 여문 씨앗을 거 두어들일수 있게 하였다.

사단지휘부에서는 칡산조성 사업에서 성과가 오르는데 맞게 모든 단위들에서 2년정도 자란 칡넌출의 일정한 부분을 잘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봄철에 리 용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 고 진행하고있다.

> 글 본사기자 정 영 철 본사기자 김성일 사진 본사기자 김 광 혁



- 함경 남도려 단에서 -



- 인 민 보 안 부 돌 격 대 에 서 -

공기예열설비들의 제작설치를 다. ᄀ치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 을 다그치는 한편 보이라들에 공기예열설비를 새로 제작설치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

키고있다. 이들은 종전의 기술개조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연소효 륰을 보다 높이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 3호보이라에 능 률높은 공기예열설비를 성과적 으로 도입하였으며 또 다른 보 이라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극 받아들여 발전기들의 효률 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장조건에 맞게 전력생산을 더 욱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연소효률을 보다 높이는 데서 찾고 공기예열설비의 제작 설치를 다그치는데 큰 힘을 넣 고있다. 특히 유능한 기술자, 기 능공들을 망라하여 자체의 기술 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로력조직 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설비제작 과 설치를 발전설비대보수와 밀 접히 결부하여 동시에 진행해나 가고있다.

문학철, 리주현동무를 비롯하 여 보이라계통의 풍부한 지식 과 경험을 소유하고있는 기술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공기예열 《발전소들을 더 잘 정비보 설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이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 들은 여러가지 부속품가공을

양 화 력 발 전 련 합 기 업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질적으 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 면서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연료 조립과 설치과정에서 제기되는

> 가고있다. 특히 열손실을 극력 줄이면서 화실의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모를 박고 종전보다 보이라의 연소효률을 더욱 높이 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

열설비보수사업소의 로동자들 은 자체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 히 높이면서 매일 맡은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오창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능공들이 가치있는 기술혁신 안과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 아들여 보이라의 페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석탄연소 이 세우면서 공기예열설비들을 에 필요한 공기온도를 보다 높 일수 있게 하면서 가공과 조립, 설치작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

으키고있다.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수십개의 주요부분품제작과제 가 손색없이 수행되였으며 3호 보이라에 공기예열설비를 성과 적으로 받아들인데 이어 7호보 이라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력공업성에 서는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으며 평양시 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설 비제작에서 제기되는 가공과제

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지금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 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 들은 발전설비의 정비보수를 다 그쳐 겨울철생산대책을 빈틈없 새로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280여만㎡의 기능성3겹온실박막을

남 흥 청 년 화 학 련 합 기 업 소 에 서

막생산공정을 꾸려놓은 결과 온 각을 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남흥청년 화학련합기업소 기능성 3 겹온 실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릴수 있

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련합기업소와 고압폴리에틸 렌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후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지난 8월 중순 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실박막생산공정에서 증산의 동

280여만m²의 질좋은 기능성 3 겹온실박막을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건설

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 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 가의 령마루에 승리의 붉은기 를 휘날려야 합니다.》

지난 6월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업소 겹온실박막작업반원들은 누구나 에 능력이 큰 기능성 3 겹온실박

게 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 하시면서 원료보장문제를 비롯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질 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받아 안은 사랑과 믿음에 높은 생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증산투

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의 기 술기능수준을 하루빨리 높이는 데 서차적힘을 넣고있다.

직장장 리창수, 책임기사 리 윤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종 업원들이 매일 1시간이상 기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기술 기능을 높여가고있다. 기능성 3 새 기술의 주인이 될 남다른 자

현대적인 설비들의 성능을 하루 빨리 파악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결과 짧은 기간 에 작업반원들은 박막의 두께와 너비를 임의로 조절하고 원료의 합리적인 배합과 온도조절 등 설비들을 원만히 조작할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게 되였다.

작업반장 림정혁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 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주 인답게 참가하고있다.

리부영, 김춘식, 진재룡동무 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원료 혼합 및 공급기들에서 원료들을 비률에 맞게 공급하며 압출기들 마다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박막생산공정의 심장부를 담당 한 고충일, 박충혁동무들은 3 겹박막을 형성하는 노즐부분에

대한 설비관리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하여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박막감는 공정을 맡은 기대공들도 안내로 라와 박막접는 장치, 1차, 2차 연신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조작 과 관리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 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박 막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현행생산 에 응당한 힘을 넣으면서 생산공 정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적으로 내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 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 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해 기능성 3겹온실박 막생산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홍 철 호

버섯공장건설에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이 버섯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내

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도에서는 태천군 룡상리지구에 2만m²의 면적을 가진 수백t능력 의 현대적인 버섯공장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력량을 집중하 여 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 있게 내밀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에서는 버섯을 많이 기를데 대하여 강조하였 습니다.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들에서 능력이 큰 버섯공장을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버섯을 생산하여 공 급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 서는 현장지휘부를 조직한데 이 어 력량을 집중하여 버섯공장건 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도에 서는 설계를 선행시키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를

북 도 에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버섯공장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일정계획 을 명백히 세우고 모든 단위들 에서 맡은 공사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자주 나가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함룡철, 홍용남, 김룡호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일군들은 혁 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일본새 로 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최 대로 폭발시키고있다. 지휘부일 군들은 세멘트와 혼석, 철근과 목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 우면서 립체전을 벌려 모든 공 사대상들을 동시에 내밀도록 경 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 히 지휘부일군들은 버섯공장부 지에 개울이 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다리를 새로 건설하고 1 000㎡의 장석공사를 빠른

시일에 끝내게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기본건설대상 을 맡은 단위들에서 세차게 타 오르고있다.

서

6개 호동의 궁륭식박막온 실건설을 맡은 태천군돌격대 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버섯생 산에 필요한 방대한 온실구조 물건설 기초굴착과 벽체축조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 과를 이룩하였다. 종합준비실 건설공사를 맡은 철산군돌격대 원들도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벽체축조공사를 끝낸 데 이어 며칠동안에 90㎡의

층막치기를 끝냈다. 도에서는 건축공사를 다그치 는것과 함께 락원기계련합기업 소, 신의주선박공장을 비롯한 여 러 단위들에서 버섯공장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기일에 만들 어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버섯공장건 설이 완공될 날은 하루하루 앞 당겨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베풀어주시였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현대적

인 편직사생산공정을 새로 건설 하여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 하였다.

수천 t 능력의 편직사생산공정 이 일떠섬으로써 질좋은 편직사 를 함흥편직공장을 비롯한 경공 업공장들에 보내주어 양말과 뜨 개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분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 은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 을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경공 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로대 우에서 활력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12월 눈

보라길을 헤치시며 함흥편직공장 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질좋은 양말과 뜨개옷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 면서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편 직 사생 산 적인 공정 건 설 흥 모 방 직 공 함 장 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함흥편 직공장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 그치는 한편 이 공장에 보내줄 편직사를 생산하는 공정을 함흥 모방직공장에 새로 건설하기 위 한 투쟁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경공업성 의 방조밑에 함흥모방직공장의 일

편직사생산공정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기 술자들은 함경남도청년돌격대

원들과 함께 이미 있던 생산건 물을 편직사생산건물로 개건하 는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바닥. 벽체미장과 천정공사를 단위 일군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본때있게 해제끼였다. 그리하여 수천m²에 달하는 드넓은 생산건 물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았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설비조 립전투를 적극 내밀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설비수리직장 과 전기직장, 증기직장의 기술 자, 기능공들은 인민의 행복을 마

많은 설비들과 보조설비, 실험설 비조립과 관로망공사를 짧은 기 간에 끝내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얼마전 새로 완공된 편직사생 산공정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 행되였다. 시운전에서 성공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 자들은 질좋은 편직사를 함흥편 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 에 보내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 원대회가 사람들에게 주는 여운은 참으 로 크다.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자랑높은 우리 혁명무력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인민군대의 세포 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의 강화발전에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다심 한 은정, 크나큰 믿음, 따뜻한 손길을 삼 가 더듬어보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부적필 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 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

[.[[F. »

우리 혁명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기에 최고사령관과 전사들간의 혼 연일체는 어떻게 더욱 강화되고있는가.

우리 천만군민은 과연 어떻게 피눈물 의 언덕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산악같이 일뗘 서게 되였는가.

력사의 이 물음에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념원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선군혁명 령도의 길에 새겨가신 전사들에 대한 열 화같은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이 대답 을 주고있다.

주체 1 0 1 (2 0 1 2)년 8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찾으신 조선인민군 어느 한 부대의 녀성중대, 이 중대로 말 하면 많은 일화들을 낳아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너무도 잘 알려진 녀성중대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와 녀성군인 들사이에 오고간 혈연의 정이 감회깊은 -추억과 감격의 파도를 몰아온다.

감나무중대에 새기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의 한페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랑의 이야기로 더 활짝 꽃피워주시였다.

그날 한상한상의 기념사진마다에 어려 있는 잊지 못할 날들을 긍지에 넘쳐 말씀 올리는 중대지휘판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 이 찍은 기념사진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고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그날 중대군인 들에게 식사까지 차려주신 장군님께서 줴기밥을 드시며 전선길에 오르신 사연 을 후날에야 전해들었다고 말씀올리는 지휘관들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세대가 바뀌여도 중대의 정신과 전통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대에 어리여있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초소길을 걸으시였다. 지난 해에 감을 얼마나 수확하였는가를 알아보 시고 다심한 은정도 부어주시였다.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옆 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느라 오랜 시 간 서계셔야 하시였지만 환하게 웃으시 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그이의 품 에 안겨 사진을 찍는 최상의 행복속에 울 며 웃는 군인들의 모습으로 중대는 선군 혁명력사의 갈피에 또 하나의 혁명일화 를 남기였다.

그이께서는 중대를 떠나있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마음에 걸리시여 사랑 의 약속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거룩하신 그날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중대강화를 위해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일찌기 주체형의 첫 무장대오를 결성 하시던 시기에 벌써 중대를 혁명무력의 세포로, 기본전투단위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대강화를 위해 새기신 헌신의 자욱 그 얼마였던가.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용위한 항일의 7련 대 4 중대, 경위중대, 녀성중대, 소년중대… 백두광야에 타번진 항일혁명의 불길속 에서 영웅중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마 련되였고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의 포연속 을 헤쳐 군력강화의 년대와 년대들에 줄 기차게 이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 로선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 을 이끄시여 위대한 선군시대를 펼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얼마나 거대한것인가.

고락을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과 이끄심속에서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 위인 모든 중대들이 조국수호의 총폭탄 대오로, 정예화된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자라났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우에 믿음과 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꽃펴난 곳 이 어찌 다박솔중대와 감나무중대, 들꽃 중대와 대덕산중대, 리수복, 김광철영웅 중대들뿐이라.

눈오는 아침에도, 비내리는 저녁에도, 명 절날과 휴식일에도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중대들을 일당백의 전 투대오로 억세계 키우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우리의 전사들은 그 무엇과 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모든 일군들과 지휘관들이 친부모의 뜨 거운 사랑을 지녀야 한다고 간平히 가르치시며 헤치신 풍랑사나운 배길, 눈 비내리는 선군길을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어가신다.

중대강화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드팀없 는 의지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중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 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대하여 얼마나 감회깊이 추억하 시였는지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이 전 하고있다.

지난 5월 어느 한 부대를 시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속중대 를 돌아보실 때였다.

병실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생울타리를 해놓으니 비물이 떨어져도 흙이 패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병영을 제 집뜨락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착상도 할수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 였다.

다시금 부대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서서 보고싶 은 부대, 마음에 드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지 않았던가.

훌륭하게 꾸려진 부대를 돌아보니 이곳에 꼭 와보시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 생각 이 난다고, 장군님을 모시고 부대에 왔더 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 하시던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 도 병사들도 목메여 눈굽을 적시였다. 그때뿐이 아니다.

찾으신 인민군중대들마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치솔을 드시고 알려주신 이닦기방법에도, 역삼을 리용한 한증 및 목욕방법에도, 잔디씨채종방법에 도, 가늠해보신 병실온도와 병사들이 덮 고자는 담요의 질에도, 중대장과 중대정 치지도원이 합심하여 병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바란다는 당부에도 뜨거운 사랑은 어리여있었다.

병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끝이 없었다.

하기에 중대는 나의 집 정든 나의 집이 라고 병사들이 자랑을 담아 부르는 노래 를 우리 어찌 무심히 들을수 있으랴. 중대생활에 대한 애착과 긍지, 자랑만

이 아니라 명실공히 중대를 병사들의 정 든 집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의 찬눈 비를 다 맞으시며 선군혁명령도의 자욱 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격정이 이 노 래에서 뿜어져나오기때문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 총대와 인연을 맺고 보 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병사들 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은 정녕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도 잴수도 없는 무한대한 기적과 용맹을 낳고있다.

그 사랑속에 방선천리의 유명무명의 중 대들이 일당백으로 다져지고 《마식령속 도》 창조의 불길이 온 사회에 타번져 사 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새 기운이 태동하고있다.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와 우리 군인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적판 계의 위대한 력사를 담은 격조높은 서사 시이며 또 하나의 건군실록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령도속 에 항일의 7련대 4중대가 수령결사옹 위의 전위부대로 전군의 앞장에 서있고 감나무중대, 들꽃중대가 녀성중대의 모범 으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으며 오늘 에는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천으로, 만으 로 더욱 늘어난 일당백중대들이 무적필 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사랑이 전군의 중대마다에 해 빚처럼 따스히 스며들고있기에 수령결사 옹위의 총대는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백두의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혁명의 수뇌부결사용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총폭탄중대들이 무성한 숲을 이

본사기자 리금분 지를 안고 부르는 병사의

명 일

ㅂ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신데 대한 소식이 실린 주체 9 3 (2004) 년 4월 14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대목이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철민동 무를 비롯한 중대의 군인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투쟁의 노 래,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 며 충천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 해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

를 축하해주시였다. … 강철민,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되여 부대의 지휘관 도 아니고 평범한 병사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 에 소개되게 된것인가.

여기에는 참으로 가슴뜨거 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위 대 한 령 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보위는 공민적의무

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 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를 찾으신 그날 근무장소와 병사

들의 침실을 돌아보시고 중대 군인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아 주실 때였다. 설화와 합창 《장군님 뵙고

싶었습니다》로 시작된 공연

은 군무생활의 나날 낮이나 밤 이나 위대한 장군님을 손꼽아 기다려온 군인들의 간절한 마 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공연이 고조되는 속에 한 군

인이 나서더니 노래 《내 나라 의 푸른 하늘》을 부르기 시작 하였다. 그가 바로 강철민동무 였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서 푸른 꿈을 키워가며 바라보던 푸른 하늘, 오늘은 그 하늘과 이 땅을 지켜선 긍

도

노래를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을 잘한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부대의 일군이 귀속말로

독창을 하는 병사를 소개해 드리였다. 《저 동무는 협동농장에서 뜨락또르운전수를 하다가 얼

마전에 입대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 시며 병사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어제날까지만 하여도 뜨락 또르를 몰고 전야를 달리며 노 래를 불렀다는 병사, 훌륭한 가수가 되여 이름을 날려보려 던 소중한 꿈도 뒤로 미루고 용약 조국보위초소에 달려나 왔다니 얼마나 기특한가.

조국보위의 열망으로 가슴 을 불태우는 온 나라 청년들의 드높은 애국의 열기인양 노래 는 더욱 고조되였다.

그의 노래를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주시였 다.그러시고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노래를 구수하게 잘 부른다고 치하하시였다.

공연이 끝났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 들이 공연을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특히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부른 군인이 노래를 전문예술인들 못지 않게 구수 하게 잘 부릅니다. 그가 나이 들어 입대한 동무라고 하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

그가 노래를 불렀으면 얼마 나 잘 불렀겠는가.

하지만 그이께서는 재능에 앞 서 노래속에 담긴 한 병사의 소박 하고 진실한 마음에 그리도 깊은 감명을 표시하시는것이였다. 뜨 락 또 르 운 전 수 출 신 의

병사,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어 린 말씀을 전달받는 그의 심정 이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그러나 조국보위를 공민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총을 잡은데 불과한 너무도 평범한 자기의 앞길에 얼마나 크나큰 축복과 사랑이 기다리고있는 지 그때 병사는 다 알지 못하 였다.

그날 중대를 떠나시여 며칠 에 걸쳐 부대안의 구분대들을 시찰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시금 그 병사의 노래를 추억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중 대에 입대한 군인이 조국을 지 키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던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다고 하면서 노래 《내 나라 의 푸른 하늘》을 부르는것을 보고 자신께서는 큰 감동을 받았 다고, 그가 노래를 전문가들 못 지 않게 구수하게 잘 불렀다 고, 그 노래를 그렇게 구수하게 부르는것을 처음 들었다고 하시 면서 노래를 부른 군인의 이름 이 보도기사에 실린데 대하여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보도가 전해진 그날에도 그 를 다시금 추억하시면서 그를 불러다 식사도 함께 하고 집에 소식도 전해주게 하려고 하였 는데 시간이 없어 아쉽게 되였 다고 못내 섭섭해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길에서 만나보신 병사 그 얼마이며 남기신 가슴 뜨거운 사연 그 얼마이랴.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사랑 과 믿음을 오늘도 가슴에 안고 사는 강철민과 같은 수많은 평 범한 병사들이 있어 내 조국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 치고있는것 아닌가.

본사기자 백 영 미

깃든 다심한 사랑 영예사진에

주체 94 (2005) 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 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였 을 때의 일이다.

부대지휘관의 안내를 받으며

교양실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중히 보관되여 있는 사진보관함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부대지휘관에게 사진들이 이렇게 많은가고 다정 히 물으시였다.

부대지휘관은 중대에서 군인 들이 평시에 찍은 사진들과 고 향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집체적 으로 보관하고있다고 자랑스럽 게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진이 많은 까닭이 리해되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교양실에 사진 보관함을 만들어놓고 군인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관하도록 한것 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군인들 이 사진을 배낭이나 군복주머니 안에 넣고다니면 구겨지거나 비 에 젖어 못쓰게 될수 있지만 이 렇게 함에 넣어두었다가 보고싶 을 때마다 꺼내보도록 하면 사 진을 잘 보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군인들의 영예게시판 앞에 서시여 군무생활에서 모범 인 군인들의 사진도 한장한장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군인들에 게 영예사진을 잘 찍어주는것도 중요한 교양사업의 하나이라 고, 영예게시판에 소개한 사진 들을 생활적으로 잘 찍었다고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부대 지휘관들의 얼굴마다에도 기쁨 이 한껏 어리였다.

못내 기뻐하시였다.

몇해전 삼복철에 부대의 어느 한 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군인들의 영예사진을 몸소 보아 주시며 영예사진을 찍어주는 사 업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 직해야 한다고, 자신께서 그전 에 영웅강계장자산제 1 중학교 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는 학교 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제자들이 초소에서 보내오는 영 예사진과 편지들을 가지고 학생 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잘하고있 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찍어 영예게시판에 붙이기도 선군령장의 따뜻한 축복이였다. 하고 고향에도 보내주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 회관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면 군인들이 제대되여 사회에 나가서도 병사시절을 추억하 면서 혁명적군인정신을 가지 고 사업과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부대지휘판들은 젖어드는 가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들은 군인들의 영예사진을 찍 어주는 사업을 단순히 군인들 이 군무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주시는것 아니라. 그렇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 이 값높이 빛내인 병사시절을

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위한 사업으로만 생각하고있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제대되여 사회에 나가서도 보람찬 병사시절을 소 중히 추억하면서 혁명적군인정 신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잘 해나갈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깊이 새겨주신 력사의 진리

어느해 늦은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 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병영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전투임 무수행정형과 군인들의 생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알 아보시기 위하여 중대교양실에

들리시였다. 중대교양실에 들어서시여 군 인들의 사상교양에 리용되고있 는 자료들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탁에 놓인 탁상교 양자료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탁상교양자료를 몸소 펼쳐 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군인교양에 좋은 자료들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휘관 들에게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 대가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은 력

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지였다. 혁명적훈련열풍이 안아온 위력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 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한 인민군부 대의 중대군인들이 진행하는 훈

련을 보아주시였다. 훈련은 처음부터 실전의 분위

휘하였다.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력사의 진리를 깊이 새기며 지휘관들은 군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 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일판하게 틀어쥐고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

기를 방불케 하였다. 군인들은 평시에 꾸준히 련마해온 자기들 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

훈련이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는 훈련 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

주체 9 7 (2 0 0 8)년 4월 으로 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철 저히 구현하여 훈련으로 밤을 밝히고 새날을 맞는 혁명적훈련 기풍을 확립한 결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날수 있었

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 안는 지휘판들의 얼굴마다에는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 게 일으켜주시여 오늘의 자랑찬 결실을 안아오신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어려있었다.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이는 지

이런 무적의 강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날 의 가르치심에는 인민군군인들

동 지 애 로

영웅중대식당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하여 노력 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정적소행을 만족하게 들어주신

위력이 있고 우리의 혁명위업이 언제나 필승불패하는 담보가 있 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이 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여

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결 합 된

어느해 건군절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의

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갖가지 명절음식들을 한가지한가지 보아 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지휘관이 중대 사관들과 구대원들이 자기들은 좀 못 먹어도 어린 병사들에게 음식을

중대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긍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기특 하다고, 중대사관들과 구대원들이 회관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형구실을 잘하는것 같다고 말씀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휘관들에 게 관병일치가 가지는 의의에 대

하여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한동안 중대지휘판들을 미뎌 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하가 서로 위 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고있는 사실이 마음에 든 다고, 동지애로 결합된 힘은 그 어떤 뢰성벽력보다 세다고 뜨겁

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 안은 중대지휘관들의 가슴마다 에는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단결 된 힘은 이 세상에 당할자 없다

는 확신이 꽉 차넘치였다. 본사기자 림정호

그날의 말씀을 받아안고 구분 오늘만 아니라 래일까지도 영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원히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대에서는 군인들의 영예사진을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

정치리념은 정치가의 철학적신조이고

력사에는 제노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리념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의 정치

원래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자본

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

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의 정치 리념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오스트리아공화국 련방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오스트리아공화국 련방대통령 피 쉐 르 각 하

나는 오스트리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수복영웅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심장에 새겨가는 인민군군인들 리영호 찍음

한 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착취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근로인민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중은 정치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 이끌어오신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 주의사회에서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 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 인 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사회주의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 에 사회주의정치의 우월성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사 랑과 믿음의 정치는 강한 총대를 전제로 한 다. 제국주의침략위협이 존재하는 한 총대 가 강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없다. 선

회에서 정치의 본질을 이루며 바로 여기

군의 길에 참다운 애국, 애민이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 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 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나의 가슴은 형 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지금은 그 어떤 비싼 대 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 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 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 을 이어나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군 하 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선군은 인민에 대한 최 대의 사랑이고 헌신이였다. 인민을 위하 는 마음이 그처럼 뜨겁고 강렬하셨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 구한 기간 선군을 불변의 정치리념으로 간직하시고 사회주의정치의 험난한 초

행길을 헤쳐오실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의 정치 리념은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가장 정확 충정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없

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치리념이다.

정치리념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그것 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가 에 의하여 규정된다. 시대가 절박하게 바라는 문제를 외면한 리념, 당리당략이 나 공명심으로부터 출발한 리념은 빈소 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정치리념으 로는 시대를 이끌수 없으며 인민의 공감

오늘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 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투쟁은 그 어 느때보다도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다. 제 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오늘 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 척해나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총대가 강 해야 한다. 자체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가져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승리한 혁명을 보위할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요 구를 반영하고있는것이 바로 위대한

과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할수 없다.

장군님의 정치리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정치리념에는 강한 민족자주정신, 견결한 반제투쟁정 신이 맥박치고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 가 남아있고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 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틀어쥐고나가 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지론이 였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 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도, 군대이 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도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정치리념 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반제투쟁의 전 초선에서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높은 존엄과 필승불패의 위 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리념의 과학

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의 정치 리념은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이 숭고한 정치리념으로 된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선군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총대 에 의거하여 두차레의 혁명전쟁과 두단 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

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 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 지 계승완성하시려는것은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한평생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 으로 심장을 끓이시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는 일찌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 0 5 땅 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가슴뜨거운 이야기에도 깃들어있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눈물 겨운 화폭에도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 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으며 이 땅 우에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가 펼 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정치리념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정의 결정체이다. 정치리념의 위대성이자 곧 정치가의 위대성이다. 우리는 선군을 확고부동한 정치리념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구현 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력 사를 통하여 오로지 우리 조국의 강성번 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 을 다 바치신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 을 깊이 새기게 된다.

리 영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 LICH. »

지난 10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전초기지 나 같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날이 갈수록 활짝 꽃퍼 나는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는 뜻깊은 그날을 계기로 로동계급 을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 기가 수놓아졌다.

얼마전 이 공장을 찾은 우리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를 동행하였던 공장책임일군들 과 현장에서 작업모습을 보여드 린 종업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신 하늘같 은 사랑과 믿음은 지금 수도 평 양의 곳곳은 물론 온 나라에 전 설같이 퍼지고있다.

당보에 실린 현지지도소식을 보면서도 느낀것이지만 공장에 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로동계 급에 대한 크나큰 은정을 온 세 상에 전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지배인 민일홍:아마도 그럴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질좋은 천을 마음먹은대 로 짤수 있게 새로 꾸린 현대적 인 생산공정을 료해하기 위하여 우리 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종합생산지령실에 들어서시였 다. 우리는 여기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새로 꾸린 생산공정에 대하여 편집한 록화물을 보여드 리려고 하였다.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록화물은 후에 시 간을 내여 보겠다고 하시면서 뜻밖에도 공장종업원들의 생활

로동계급을 위한 하늘같은 사랑 대를 이어 전해가리

일군들과 종 업 돌 나눈 이야기 숙평양방지

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당위원회 비서 오춘영: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서 새로운 생산과제를 수행하자 면 방직공장로동자들의 생활부 터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그러시고는 공장에서 부족되는 종업원들의 살림집세 대수와 지어는 한집에서 여러

을 구체적인 수자까지 찍어가시 며 이야기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랐다. 원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장의 형편을 그토록 속속들이 잘 아

부부가 살림을 하는 세대수 등

실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종업원들의 살림집과 합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장일군들이 안고있는 제일 큰 애로이고 안타까운 문제였 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시 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공장의 실태를 다 료해하고계시였 ㅇ니...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눈 물이 저절로 나오는것을 금할수

우리 원수님의 그날의 현지 지도는 이렇게 로동계급에 대 한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 되였다.

견방종합직장장 박기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견천직장의 새 공정들을 일일 이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천을 짤수 있게 꾸려놓으니 얼 마나 좋은가고, 능력을 확장해 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 고는 이 생산공정건설을 타산할 때 내각책임일군이 나라형편을 생각하며 무척 말을 뗴기 힘들 어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공정 인데 돈을 쓸데 가서는 써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민일홍: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생산현장을 돌아보고 나오시 면서도 우리들에게 설비현대화 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늘이자면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부터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깨우쳐 주시였다.

오춘영: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날 가시는 곳마다 에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가 바 로 그 문제였다. 가공직장에 들 리시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과제를 수행 하자면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장당조직이 무엇보다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또다시 말씀하시였다.

민일홍:비단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만을 베풀어주신것이 아니다.

견본실을 찾으시여 수압직기 에서 생산한 교복천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꽃피 워 하루빨리 학생들에게 새 교복 을 다 입혀 나라의 모든 거리가 환해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공장 인 견천직장의 생산능력을 그에 맞 게 확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그를 위한 실무적대책들도 세워

주시였다. 기자: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을 돌아보시면서 공장로동계급 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자욱자 욱을 이어가신데 대하여서도 듣 고싶다.

혁명사적교양실 강사 강창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님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혁명 사적교양실의 호실들을 다 돌이 보시였다. 공장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빛내이자면 생산을 정상화하 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로동자 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주어야 한 다고 강조하시였다.

제가 혁명사적교양실에 모셔진 로동자합숙을 찾으시여

몸소 국맛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에 대 하여 해설해드리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여 참 으로 뜻이 깊은 사진이라고, 앞으 로 로동자합숙이 새로 일떠선 다 음 꼭 찾아와 김치맛, 밥반찬맛을 보아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 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건 자신께서 해주시겠다고, 합숙을 직접 책임지고 건설해주시겠 다고 말씀하시였다.

남기시였다고 말씀드리였을 때

오춘영: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9 8 (2009)년 7월과 주체 100 (2011)년 5월 공장을 찾으 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로고에 대해서도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샤쯔천견본들도 보아 주시면서 우리 녀성들이 이 천 으로 옷을 해입으면 거리가 환해 질것이라고, 이 공장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 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민일홍:혁명사적교양실에 이어 연혁소개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우리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공장의 기술 자, 기능공대렬을 꿋꿋이 이어나 가기 위한 사랑과 은정을 다 베 풀어주신데 대하여서도 말씀올 리였다. 그때 동행한 내각책임 일군이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방직공들의 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지 못했다고 자책어린 목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그것이 어떻게 동무들의 잘못 만이겠는가고 하시며 자신께서 방직공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주 시겠다고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합숙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는 자신께서 직접 맡아 해 결해주며 강재문제는 강철로동 계급의 증산열의를 불러일으켜

소리로 보고드리였다.

풀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 였다.

기자:정말 이야기를 들을수 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 사랑에 목이 메인다.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로동자합숙건설부 지에까지 직접 가보시였다는것 으로 알고있다.

민일홍:그렇다. 우리 원수님의 분과 초가 얼마나 귀중한 혁명 시간인가.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응당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로 동자들의 생활문제에 그토록 세 심한 관심을 돌려주신것만도 더 없이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런 데도 자신께서 직접 나가보아야 로동자합숙건설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장에서 건설부 지를 찾으시였다.

오춘영:지금도 생각해보면 송 구스럽기 그지없다. 합숙을 건설 한다고 이미 있던 낡은 건물이 나 해체한채 이태째 일을 전개 하지 못하고있었다. 여기저기 잡 풀들이 무성하고 길아닌 길마저 군데군데 물이 고여있었다. 또 한켠에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면 서 나온 강철트라스들과 공장건 설에 쓰려고 찍어놓은 블로크들 이 볼품없이 쌓여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이 모든것을 탓하지 않으시 고 현지에 몸소 나오시여 건설 의 단계별목표를 정해주시였 다. 그리고 수도의 중요대상건 설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떨친 힘있는 건설력량을 보내주시겠 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고서 공장을 떠나시였다.

기자: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터에서 몸가까이 뵈온 로력혁 신자들의 이야기도 듣고싶다.

인견천직장 작업반장 김은 아내:우리 원수님께서 제가 일하 는 호북정경련합기앞에 오시였 을 때는 너무도 꿈만 같아 살을

꼬집어보았다. 우리 동무들이

일하는 날실뀀공정에서 공장일 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도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다. 인견천직장 로동자 김유향: 우리 수압직기들이 두줄로 늘어 선 현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옆의 넓게 트인 통로가 아니라 실퉁구리와 도투 마리함이 삐여져나와 몹시 비좁 은 기대들사이로 걸으시며 제가

원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아직

맡은 4호기대에도 오시였다. 우리 방직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시며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처럼 가까이에서 뵈 옵게 되니 《원수님—》하고 부 르며 막 그 품에 안기고싶었다.

김은애:현대적인 수압직기마 다에서 잽싸게 일손을 놀리는 우리들의 작업모습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린 그날의 그 영광, 그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지척에서 뵈온 행복에 겨워 작업반처녀들 모두가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콩 콩 뛰며 울고울었다.

김유향: 공장의 책임일군들로 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

리 처녀방직공들을 위한 현대 적인 새 합숙을 건설해주시겠 다고 사랑의 말씀을 남기시였 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전해듣 고는 온 직장이 기쁨절반, 울음 절반이였다. 그런데 며칠후부터 는 군인건설자들의 숙소가 전 개되고 건설자재들이 막 들어 오더니 어느새 건설장이 부글

부글 끓고있다. 정말 이제당장이라도 새 합숙 이 완성될것만 같은 환희가 우리 처녀들속에 물결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 활을 누리며 더 많은 천을 짜겠다 고 속다짐하는 동무들도 있다.

기자: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직접 받아안은 공장책임일군들의 각오가 남다르리라고 본다.

민일홍: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명판을 자신께서 친필로 써주시

겠다고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 겨주시였다.

위대한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나라의 국 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 지하는 더 많은 천을 짜고 또 짜 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천증산으로 받들어나갈 충정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 는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 를 짜고들어 원수님께서 제시하 신 강령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 히 관철해나가겠다.

오춘영: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평범한 방직공출신인 제가 나라에서 제일 큰 방직공장의 당사업을 맡은지는 이제 겨우 몇달밖에 되지 않는다.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번 현지지도를 통하여 공장당사업에서 선차적 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오늘의 이 영광, 이 믿음을 영원히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공장을 당의 사상 과 의지로 숨쉬는 공장, 당정책관 철의 제일결사대로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한 광명



《마시경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올해농사를 떳떳이 총화할 열의드높이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한 계

에게는 신 력 강 자 들

를 25일 앞당겨 끝내고 낟알털기 를 마지막단계에서 진행.

이 성과는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재령군 일군들과 농장원 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자 랑찬 결실이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이 크게 궁리하고 높 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 LIEL »

올해농사결속을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웠 을 때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하여 매일 2배이상의 실적을 내야 할 높은 목표였다.짧은 기간에 현존륜 전기재로 많은 벼단을 운반한다 는것은 아름찬 일이 아닐수 없 었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 았다. 작업반마다 설치된 탈곡 기들만 가지고서는 높아진 계획

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물론 어렵고 보통의 상식으 로는 거의나 불가능하다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무조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기일에 해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협의회에서 한 군당책임비서 남승우동무의 이 말은 일군들에

- 지난해보다 벼단실어들이기 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결론은 명백하였다. 어떤 일 이 있어도 벼가을을 선행시키면 서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동시

> 에 진행해야 하였다. 모든것을 동시에! 말은 한마디였지만 거기에 실 천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담 겨져있는가를 일군들은 물론 농 장원들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있 었다.모두의 가슴속에는 조건 이나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무

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 와 결사의 의지가 차넘치였다. 벼가을전투에 모든 력량이 총 동원되였다.

부글부글 끓는 전투장에서 누 가 일군이고 누가 농장원인지 가려볼수가 없었다. 직무는 서 로 달라도 그들의 가슴에서 끓 어번진것은 오직 하나 올해농사 를 하루빨리 결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릴 일념이였다. 벌이 생겨난이래 가을걷이가 이렇듯 통이 크고 치렴하게 진행된적은 없었다고 이 고장의 로인들도 입을 모아 말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 게 타오르는 속에 전투는 날이 어두워서도 진행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른새 벽 포전에 나온 강교협동농장 제 9 작업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데없이 소형탈곡 기의 동음이 울렸던것이다.가

까이에 가보니 농장원 한천심동 반 농장원 리덕일동무였다. 불 였다. 조금만 탈굑기를 돌리면 🦠 무가 벌써 맡은 벼가을을 끝내 고 낟알털기를 시작한것이였 다. 그의 모습은 모두의 정신력 을 더욱 분발시켰다. 그때부터 포전들마다에 소형탈곡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긴장한 투쟁속에서 이 농장에서는 열흘 동안에 벼가을을 전부 끝내고 낟알털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

게 되였다. 가을걷이에서 제일 많은 품이 드는 일은 벼단운반이였다. 원 래 군에서는 가을걷이전투를 앞 두고 탈곡기들이 만가동할수 있 게 여러 지구에 있는 변압기들 을 수리정비하고 전기선들을 모 두 교체하였다. 그리고 륜전기 재들이 부족한 조건에서 한대의 뜨락또르에 런결차 두대씩,그 것도 적재함문을 펼치여 적재량 을 더 늘일수 있게 작전하고 그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같은 결 준비를 착실히 해놓았다. 그러 나 운반량에 비해볼 때 륜전기

재들이 어방없이 모자랐다. 그때 래림협동농장에서는 뜨 락또르를 주야간 만가동시켜 운 반능력을 더욱 높이기로 하였 다. 하루이틀도 아닌 전투의 전 기간 뜨락또르를 만가동시키자 고보니 운전수들이 모자랐다.

이 소식을 알고 한 농장원이 관리위원회에 달려나왔다. 《저도 운전대를 잡게 해주십

시오.》

어제날 운전수였던 제7작업

편한 몸이지만 벼단운반에서 한 몫하려는 그의 불같은 마음을 농장일군들도 막지 못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운반전투에 참가 시켜달라는 제기가 들어왔다. 비생산부문의 근로자들도 밤마 다 포전에 나와 지원의 땀방울 을 바쳤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운반회수를 2배로 늘이는 성과

를 이룩하였다. 강교협동농장에는 100여 정보의 진펄논이 있다. 가을건 이를 앞두고 도랑을 째고 물을 뽑았지만 그래도 땅이 질어 륜 전기재들이 들어갈수 없었다.

맨몸으로도 걸음을 옮기기 힘 들었지만 모두가 낮에 이어 밤 에도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며 벼단을 운반하였다. 그들의 가 슴속에는 이 보람찬 전투에서 의가 꽉 차있었다.

전투는 탈곡장에서도 치렬하 게 벌어졌다.

고산협동농장 제 1 작업반원 들은 탈곡장을 뜨지 않고 낟알 털기전투를 벌리였다. 첫날부터 현장에서 살다싶이 한 군일군들 도 농장원들과 함께 낟알털기로 밤을 새웠다.

자정이 훨씬 넘은 어느날 기 운차게 돌아가던 탈곡기가 멎어 섰다. 설비상태를 들여다보던 수리공이 베아링이 못쓰게 되였 다고 하면서 안타까와하는것이

하루계획을 수행할수 있었다. 그때 군당일군인 최성문동무가 자진하여 읍으로 떠나갔다. 자 기들의 일을 성심성의로 도와주 고있는 군당일군의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농장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소형 탈곡기로 낟알털기를 계속하였 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날계획 을 수행하고야말았다.

가을걷이의 분과 초를 바쳐간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라. 한밤중에 수십리 떨어진 곳에

찾아가 부속품을 해결하여 고장 난 뜨락또르수리에 이바지한 군 당일군인 김창수동무 그리고 남 먼저 낟알털기를 끝낸 강교협동 농장 제9작업반의 한천심, 봉천 협동농장 제 1 0작업반의 장연 숙동무들…

평범한 날에는 눈에 쉬이 띄 지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보석같은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 들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안승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을걷이전투를 통하여 불굴 의 정신력을 지닌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것을 톡톡히 느 꼈습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에 는 한계가 없었다.

들보다 많다. 하지만 낟알털기

있다.이 성과의 비결을 놓고

농장일군은 낟알털기도 품종별

특성에 맞게 한데 있다고 주장

본사기자 정성일

래림협동농장 왜 품종별투성을 중시하였는가 은 군적으로 논

탈 곡 장 포 전 에 생 겨 난

강교협동농장 제 3 작업반 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습지 포전에 생겨난 탈곡장이 사 대포전들의 벼단을 운반하는 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습 데 품이 많이 들었기때문이 기가 많은 포전이 탈곡장으 였다. 이 문제를 놓고 작업반 로 되였기때문이다.

혁

신

01

01

0

보

왜 이렇게 하였는가. 이 작업반의 탈곡장에는 전개하기로 하였다. 초급일 두대의 탈곡기가 있었다. 그 런데 해마다 벼단운반이 따 라서지 못해 낟알털기에 적

룡교협동농장 제14 작업 반의 탈곡기수리정비시간이 달라졌다. 농장원들이 휴식 할 때 수리공들이 탈곡기를 수리정비하는것이다.

한해농사를 빨리 결속하자 면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여 야 한다. 하지만 탈곡기를 제 때에 수리정비하지 못하면 가동률을 높일수 없다.

들에 일반화하였다. 특히 수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낟 리공들이 부속품준비를 앞세

효과있게 리용된 련결차

굴해협동농장에서 포전들 에 있던 벼단을 다 실어들이 였다. 특히 제2, 4 작업반에 서 벼단실어들이기를 남먼저 해내였다. 성과의 비결은 운반수단들

이다.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 제의 하나는 낟알털기에 벼단

운반을 앞세우는것이였다.

을 효과있게 리용하였기때문

이 문제를 놓고 한 일군은 한대의 뜨락또르에 두대의 런결차를 달고 포전으로 나 가자, 그리고 먼저 한대의 련 결차에 벼단을 실어 탈곡장 으로 떠나보내자, 탈곡장에 서 농장원들이 그것을 부리 울 때 이미 세워놓은 런결차 에 벼단을 싣자고 하였다. 합리적인 방도였다. 농장

일군들은 즉시 모든 작업반

들에서 뜨락또르런결차를 효

초급일군들은 대담하게 한대

의 탈곡기를 습지대포전에

군들과 농장원들은 먼저 벼

가을이 끝난 습지대포전에

벼짚을 두툼히 깔았다. 습기

알털기휴식시간에 탈곡기를

라진 다음부터 탈곡기가동률

이 더욱 높아졌다.

탈곡기수리정비시간이 달

농장일군들은 즉시 이 작

업반의 경험을 모든 작업반

수리정비하기로 한것이다.

달 라 진

운데 기초하여 현지에 나가 탈곡기가동정형을 구체적으 로 알아보면서 높은 책임성 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

해서였다.그리고 그우에 멍

석들을 편 다음 탈平기를 설

치한데 이어 낟알털기를 시

현지에서 낟알털기를 하니

품이 적게 들어 좋은것은 물

론 낟알의 허실이 없어 좋았

다. 또한 낟알털기성과도 부

쩍 올라 올해농사를 짧은 기

간에 결속할수 있는 담보가

작하였다.

마련되였다.

수 리정비시간

수리공들은 낟알털기를 짧 은 기간에 해내는가 못해내는 가 하는 문제가 자기들에게 달러있다고 하면서 탈곡기수

리정비를 제때에 하였다. 과있게 리용하도록 하기 위

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작업반들에서 실정에 맞게 뜨락또르련결차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 게 벌어졌다. 따라서 벼단운 반성과가 급격히 올랐다. 벼

단운반을 맡은 농장원들은

뜨락또르련결차리용률이자

벼단운반성과라고 하면서 기 세를 올리였다. 벼단운반성과가 오르는것만

큼 낟알털기성과가 올랐다. 본사기자

알이 잘 털어

지는 품종부터

집중적으로 실

어들여 털어내

기 위한 투쟁

삼지강협동농장 에서 낟알털기를 20여일동안에 완 전히 결속지었다.

여일동안에 끝 낸

그리하여 뜻깊은 올 해 농사를 빛나게 총화할수 있 더 많은것은 아닌데?) 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단을 빨리 거두어들이고 탈곡을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농장일군들은 낟알털기를 20 여일동안에 결속할 목표를 세웠 다. 하지만 확고한 담보는 없었 림시도로를 내기 위한 작전을 다. 물론 품을 들여 탈곡기들의 펼치였다. 이렇게 되여 제3, 5 능력은 높였으나 운반수단들이 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들 에 림시포전도로들이 생겨나기

제한되여있기때문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제7작업반 탈곡장에 나갔던 농장일군은 주 변에 쌓인 벼단무지들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였다.

(이 작업반이라고 운반수단이

삽 지 강 협 동 농 장 에 서

더니 차근차근 설명하는것이였다. 작업반에는 벼단운반에 불리 한 포전들이 많다. 이로부터 작 업반에서는 뜨락또르들의 운행거 리를 줄이기 위해 연 수십km의 림시포전도로를 내였다. 이 사연 을 알게 된 농장일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농장에서는 즉시 벼단운반에 편리하게 포전들에

시작하였다. 포전들에 림시도로가 생겨나니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낮에는 물론 밤에도 벼단

운반을 안전하게 할수 있어 좋았

다. 또한 벼단운반거리가 줄어든 이때 작업반초급일군이 다가오 것만큼 연유가 절약되였다. 따라 서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 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운반수단들의 가동률 이 높아지면서부터 낟알털기성 과가 더욱 올랐다. 하지만 관리 위원장은 만족할수 없었다.

(소형탈곡기들도 가동시키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이 문제를 농장일군협의회에 제기하였다. 일군들속에서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다음날 농장에서는 편의봉사 부문의 로력을 비롯한 비생산부 문의 로력을 작업반들에 합리적 으로 배치한데 이어 소형탈곡기 로 낟알을 털기 위한 전투조직 을 하였다.이때 농장일군들이

잘한것은 작업반들 에서 청년들로 낟알 털기조직을 하되 벼 알이 잘 털어지는 다수확품종의 논벼 부터 털도록 한것이다.

소형탈곡기가 포전에 전개되 면서부터 낟알털기성과가 더욱 올랐다. 특히 제 8, 9작업반에 서는 소형탈곡기가 고장나도 제 때에 수리할수 있게 눈썰미가 있고 손재간이 있는 농장원들을 1~2명씩 선발하여 배치함으로

소형탈곡기로 낟알털기를 하 니 역시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낟알털기실적이 더 올랐다. 또 한 벼단을 운반수단들에 옮겨싣 거나 부리우는 일이 줄어들어 낟알의 허실도 없어졌다. 이렇 게 하여 이 농장에서는 낟알털 기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하여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위 대 한 써 기대의 가동률을 높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빨

하였다.

면적이 제일 많

은 농장이다. 따

라서 실어들여

0: 합니다.》 낟알털기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던 날 저녁이였다. 작업 반들에서의 하루 낟알털기실적 을 종합하던 농장일군은 제 9 작업반실적에 의문을 가지게 본사기자 김 창 길 되였다. 다른 작업반들보다 실

협 동 털어야 할 벼단도 그 어느 농장 적이 높기때문이였다. 다음날 아침 이 작업반탈곡장에 나갔 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던 그는 농장원들이 종전보다

많은 벼단을 탈곡기에 먹이는

것을 보게 되였다. 그 리유는 타당하였다. 올해 이 작업반에서는 여러 가지 다수확품종의 논벼를 받

아들이였다. 그런데 논벼마다 특성이 있었다. 류달리 벼알이 잘 털어지는 품종이 있는가 하 리 꺼들여 낟알털기를 다그쳐 면 또 어떤 품종은 벼를 잘 말 리워야 털어지는 품종도 있다. 따라서 벼알이 잘 털어지는 품 종은 낟알털기를 할 때 탈곡기 에 벼단먹임량을 늘여도 말끔 히 털어지는것이다.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낟알털기를 하면 서 먼저 벼알이 잘 털어지는 품 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벼

종들부터 집중적으로 하도록 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한것이였다. 낟알털기를 빨리 끝낼수 있는 좋은 방도였다.

농

농장에서는 즉시 모든 작업반 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들에서 벼알이 잘 털어지는 품 종의 논벼부터 집중적으로 실어 들여 털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벼알이 잘 털어지지 않는 품종 은 충분히 말리워 털어내는것은 물론 벼단을 탈곡기에 먹일 때 그 량을 잘 조절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이 모든 작업반들에서 낟 알털기를 논벼의 품종별특성에 맞게 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든것만큼 성과가 올랐다. 제 2, 5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제 9작업반의 경 험은 낟알털기도 묘리가 있다

장 에 낟알털기성과가 오를수록 농

장일군들은 낟알의 허실을 없애 작업반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어울린 일군들은 한해농사를 결속하는데서 기본은 낟알의 허실을 없애는것이라고 하면서 논벼의 품종별특성에 맞게 털 도록 이끌었다. 신심드높이 떨 쳐나선 농장원들은 서로 돕고

맞게 낟알을 털어내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렇게 하여 농장에서는 지 난해보다 올해농사를 한달 앞 당겨 결속할수 있는 담보를 마 련하였다.

이끌면서 논벼의 품종별특성에

본사기자 정 주 원

떠밀어줄

있다.

특등을 쟁취!

이뿐이 아니다.

전국적인 어린이바둑경기에

서 수남유치원 어린이가 1등

을 쟁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

서 청남유치원의 어린이들이

도적인 혁명력사과목교수경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

구역의 책임일군들인 김명

각

이 열걸음 떠진다.》

XI

연에서 구역의 교원들이

1 등, 지난 수십년간 전국적

젘

인 체육무용경기에서 수남소 학교 체육무용소조원들이 1등,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청소년학생종 합체육경기에서 청진시적으로 수남구역의 학생들이 1등을 이런 성과들이 런이어 이룩 된것은 수남구역의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진심으로 꾸준하 게 밀어주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 김연호, 김혜경동무들에게 학교를 도와주는것은 후대들 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

우기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10월학교지 원월간을 맞으며 교육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튼튼한

경제로대에 의거하여 후대 들에게 현대적인 교육조건 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 니다.»

각지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일군들은 교육지원사업이 가 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당원들 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 키는 한편 후원단체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학교를 지원하 기 위한 조직사업들을 빈틈없 이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교 육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서 고있다.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교육지원열풍이 교육자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최근년간 청진시 수남구역 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의 교육사업에서 눈에 뜨이는 가르치심이 교육사업을 어떻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게 밀어주었는가를 총화짓는

이들처럼 교육사업을

자였고 거울이였다. - 교육부문에서 절실히 해 결을 바라는 문제들을 교단에 선 교육자의 립장에서, 자식을 학교에 보낸 학부형의 심정에 서 관심하고 풀어주자.

올해에도 구역의 책임일군 들은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 회일군들모두가 구역안의 모 든 교육기관들을 고정담당하 여 도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유치원과 소학교, 초 급중학교, 고급중학교들을 몇 개 단위씩 직접 맡아가지고 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 로력은 물론 교육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등을 해 결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 하였다.

결과 경상유치원을 따라배 워 학교전교육환경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올해에 들어와 수남 유치원, 청남유치원이 보다 현대적으로 꾸려졌으며 추목 소학교, 신향고급중학교의 덩 지큰 체육판들이 개건보수되

함흥시 흥남구역,해안구

역, 흥덕구역의 책임일군들과

교육부문 일군들은 구역안의

여러 학교들에 나가 실태를 료

해하고 전반적 1 2년제의무교

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

어주었다. 신포시와 정평군, 고

원군의 책임일군들도 학교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의 교육

사업에서 요구되는 긴절한 문

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금야군과 덕성군, 함주군,

북청군 등 여러 군들에서는

학교들에 콤퓨터를 비롯한 현

대적인 설비들을 해결하여 보

내줌으로써 교육사업의 물질

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크

게 도움을 주었다. 교육지원사

업에 후원단체들이 적극 떨쳐

나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다.

자강도의 시, 군들에서도 학

교지원월간을 맞으며 겨울나

이땔나무를 보장하기 위한 대

책을 세워주었으며 후원단체

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학

교들에 보내주기 위한 구체적

특히 전천군, 위원군에서 교

시중군과 송원군, 자성군의

인 분공조직사업을 하였다.

육지원사업이 잘되고있다.

게 나가 교수참관을 진행하고

였다.

뿐만아니라 추목초급중 학교,신향초급중학교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 연구실들이 보다 훌륭히 꾸려 지게 되였다.

수남구역의 일군들은 교육 단위들의 교육환경을 훌륭히 꾸려주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당 단위들에 나가 교육자들이 선군조선을 떠메 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그들을 고무해주고 이끌어주 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밀 고나갔다.

지난해에 도집단체조훈련에 참가한 신향초급중학교의 남 학생이 뜻하지 않은 일로 크 게 상했을 때 구역당위원회에 서는 긴급협의회를 열었다. 친자식을 위하는 심정에서

구급치료대책과 함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실무적대책들이 협의회에서 즉시 세워졌으며 부모나 학교 의 교원들보다 일군들이 남모 르는 수고를 더 많이 하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썩 후에 야 퇴원한 학생에 의하여 알 려지게 되였다. 이 사실은 많 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분발시켰다.

책임일군들도 교원들이 직업

적인 혁명가로서의 긍지와 영

예를 간직하고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고무추동하

면서 학교를 성심성의로 도와

강원도의 통천군,세포군,

안변군, 김화군의 일군들도 교

육지원사업을 힘있게 밀고나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지

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

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

는데 모를 박고 교육지원사업

대학, 전문학교들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

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과 인

민정권기관들, 후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은 대학, 전

문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전반적 1 2년

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

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남포

서

주고있다.

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구역당책임 일군이 운동용신발들을 직접 구해가지고 학교를 찾은 일도 있고 신임교원이 수업을 할 때 교수참관에 이어 교수합평 회에까지 참가하여 진심어린

적극

방조를 준 일도 있다. 얼마전에는 구역인민위원회 책임일군과 구역의 여러 기 판, 기업소일군들이 힘을 합쳐 수백벌에 달하는 운동복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겨주 었고 체육경기에 참가한 학생 들의 후방사업을 전적으로 맡 아해주었다.

어항소학교에서 수업의 효

과성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교육설비를 자체로 창안도입 하였을 때에도, 신향초급중학 교에서 현대적인 투영기에 의 한 교육방법을 내놓았을 때에 도 구역의 책임일군들은 긍정 적인 그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구역적인 보여주기사업과 경 험토론회를 조직진행하게 함 으로써 구역의 모든 교육단위 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책임일군들의 깊은 관심과 고무속에 교육사업에 대한 지 원과 후원열의는 구역당위원 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

들만이 아닌 구역의 모든 기 관, 기업소의 일군들속에서 나 날이 높아갔다. 교육자들의 사 업의욕도 그만큼 배로 높아 졌다.

밀어주고 이끌어준것만큼 성과가 이룩되기마련이다. 최근년간에 구역의 교육사

업에서 눈에 뜨이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된것은 구역당위 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 로부터 구역의 각 기관, 기업 소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나 다 학부형의 심정에서, 교 육자의 립장에서 더 높은 요 구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교육 사업을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 해 아글타글 뛰고 또 뛰였기 때문이다.

- 구역의 교육기관들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배출시키자 면 우리 일군들의 1년 36 5일이 다 교육지원의 날과 달로 흘러야 한다.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려는 일군들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나라의 만년대계가 담보된다.

이런 관점, 이런 일본새로 구역의 교육사업을 적극적으 로 밀어주는 수남구역 일군들 의 사업경험은 본받을만 한것 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동신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월간을 맞으며 일부 지역 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진지한 협의회 가 있었다. 사실 이 문제는 군 에서 교육사업을 토의할 때마다 선차적으로 관심하

령 도 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

름없는 섬마을에 몇명 안되는 어린이를 위하여 서도 학교를 세우고 산 골마을의 여라분 학생을 위하여 통학렬차를 내기 도 한다. »

동신군에는 희천발전소 가 일떠서면서 거대한 인 공호수가 생겨나게 되였 다. 그로 하여 생리고급증 느 학교, 동창고급중학교 등에 다니는 100여명의 학생 들이 자그마한 목선들을 리용하여 제각기 학교에 다니게 되였다.

시하기 위한 사업에 큰 도움 침수지역 인민들의 생활 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일,조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도와 군의 일군들은 살 국의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여기고 한결같이 떨 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세운데 맞게 학생들의 통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사색을 애국의 마음에 의하여 교육지 원열풍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거듭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 본사기자 공로 혁 나갔다. 그이후 인공호수에는

얼마전 동신군에서는 학교 지난해 새 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보장하는 통학배가 3

척이나 달리게 되였다. 중요한것은 통학배의 정상 운영이였다. 그리하여 호수와 함께 새로 생긴 동신군해운 사업소가 통학배의 운영을 🦊 전적으로 맡아나섰다. 는 문제였다.

군의 일군들도 정상적으 로 통학배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통학

배를 정상운영하기 위한 문 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던 것이다. 회의후 군의 책임일군들은

자들을 해결해가지고 사업소 로 나갔다. 우리 당의 후대사 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군책임일군들의 모습은 사업 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통학배는 지금도 학생들 과 함께 사랑의 노래, 행복 의 노래도 가득 담아싣고 등교길을 어김없이 달리고 있다. 푸르른 물결을 헤가르 는 통학배를 보며 군안의 일군 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든것을 바쳐가는 보람과 긍지 를 한껏 느끼고있다.

립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청년제6작업반원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물과의 투쟁으로 들끓고있

는 긴등벌에 인민군군인들을

보내주신다는 감격적인 소식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

인민군군인들이 몰고온 물

차들이 긴등벌에 도착하였다.

작업반원들은 군인들과 함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땅

을 푹 적시여 강냉이포기들을

에 위치하고있어 가물피해를

더 받았고 늦게 씨앗을 묻은

강냉이들은 실하게 자라지 못

작업반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포전에 기

어이 풍년가을을 안아올 마음

을 안고 한포기한포기의 강냉

이를 정성다해 가꾸었다. 이들

은 포기마다 비료와 거름을

묻어주며 강냉이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을세라 진심을

이렇게 피타는 노력을 기울

여 작업반원들은 지난해 자기들

이 맡은 모든 포전들에서 기어

농사를 잘 지어 당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려는 이들

의 충정은 올해 강냉이농사에

올해 강냉이의 초기작황은

좋았다. 그러나 작업반원들은

풍요한 가을을 그리며 강냉이

비배관리를 더욱 과학기술적

으로 짜고들었다. 여러가지 기

계수단들을 리용하여 강냉이

밭애벌김매기와 두벌,세벌김

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이 옹근소출을 내고야말았다.

에 접하였다.

맙습니다!

하였다.

다 바쳤다.

04 황주군 룡천협동 는 왕가물이 들었을 때였다. 0 농 장 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강 과 냉이농사의 본보기단 위로 내세워주신 농장 이다. 이 농장에 10 여년간 백두산위인들 의 불멸의 자욱이 깃

[[] 들어있는 영광의 포전 을 가꾸며 애국의 성 ■ 실한 땀을 바쳐가고있 🕳 는 청년제6작업반원 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농업부분의 일군 구 등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나라의 쌀독 을 책임진 주인다운 모두 살려내고야말았다. 그러 자각을 가지고 식량 나 작업반포전들은 벌의 웃쪽 증산을 위하여 헌신 기 시작으로 투쟁해나가 ✓ □ 0: 합니다. »

이 농장을 거듭 찾으 시여 강냉이농사방법 을 하나하나 가르쳐주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___ 는 어느해인가 강냉이 농사에서는 룡천협동농 지 명 두별농사도 하고 등 공장의 기계화도 실 기계와도 간곡 장이 모범이라고 하시 **○** ♣ 현하여야 한다고 간곡 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이 농장은 수령님 과 인연이 깊은 농장 이라고, 꼭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의 령도 업적을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영수동무를 비롯한 작업 반원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그 날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심장 깊이 간직하고 10여년세월 변함없이 알곡증산을 위한 투 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 왔다.

지난해 수십년만에 처음 보

매기는 물론 후치질도 질적으 두세번 씨를 뿌리고 영양단지 로 하였다. 그런데 장마가 일 모를 옮겨심었지만 강냉이포 찍 시작되고 레년에 없이 오 기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래동안 지속되였다. 게다가 개 말라버렸다. 안타까운 마음을 꼬리가 나오는 시기 무더기비 안고 강냉이포기들을 살려보 를 동반한 강한 바람까지 불 려 애를 썼지만 좀처럼 방도 다나니 강냉이수정이 문제였 가 나지지 않았다. 그러한 때 다. 하지만 작업반원들은 주저

> 하지 않았다. 비바람피해를 미리막기 위 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운 작 업반원들은 모두가 펼쳐나 인 공적으로 꽃가루를 접하여 강 냉이를 수정시키기 위한 전투 를 벌렸다. 드넓은 포전에서 강냉이를 한이삭한이삭 수정 시켜 이들은 기어이 올해 강 냈이농사에서도 좋은 결실을 안아올수 있었다.

> 두벌농사에서도 이들은 해 마다 농장적으로 앞자리를 양 보하지 않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중턱을 깎아내고 건설한 작업반남새온실, 농기구창고 의 알른알른한 중경제초기, 심 층시비기를 비롯한 중소농기 구들, 돼지, 염소 등 집짐승들 이 우글우글한 집집승우리며 수백그루에 달하는 과일나무 들과 푸르러 설레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 그 모든것에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 작업

반원들의 순결한 마음이 그대 로 비껴있다. 그 나날 작업반장 김영수동 무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로 자라났고 많은 작업반원들 이 높은 국가수훈을 받아안는 영예를 지니였다. 그리고 작업 반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긴등벌이 자랑하는 룡천협 동농장의 청년제6작업반원 들,이들은 오늘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한마음 을 안고 영광의 땅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새 교수방법을 탐구하여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집체적협의를 짜고들고있다. -영웅숙천고급중학교에서-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고 회

중 화전 국 기 자협 회 대 표 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중국 로동자일보사 국제신문 부 주임 류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 화전 국기 자협 회대 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 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 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 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을 주고있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 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만경대는 유서깊은 곳이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탑 과 국제친선전람관, 서해갑문 등을 참판하였으며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평양악기공장창립 60돐 기념 보고회가 26일 평양교예극장에

적하였다.

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일군 들, 공장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악기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어려운 시 기 악기생산기지를 꾸리실 원대 한 구상을 지니시고 주체42 악기공장을 창립하여주시였으 였다.

며 악기제작사업의 방향과 방도 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

축하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차례 공장 에 찾아오시여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수준과 악기의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질좋은 악기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

였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악기 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 을 일으켜나가도록 크나큰 믿 (1953)년 10월 26일 평양 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

중앙위원회 공장이 창립후 지난 6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자랑찬 발전 의 길을 걸어오면서 맡겨진 혁

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

돐

6

여 강조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여러가지 악기들을 수많이 생산하여 주체의 음악예술을 발 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 활을 꽃피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 인 악기생산공정을 꾸리고 새 형의 악기들을 개발생산함으로 써 나라의 악기제작기술을 높 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

축 하 문 였다.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기 념 보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인민군대 를 적극 원호하는데서 모범을 보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

하문에서 평양악기공장 로동 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숭고한 충정과 열 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악기생산 과 악기제작기술발전에서 커다 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 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조규덕 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지배인 리창호, 직장장 리춘영, 로동자 박영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지난 60년간 공장이 이룩한 성 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앙위 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 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악기공업발전 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 하고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과 의도 를 높이 받들고 악기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감으 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네)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 축구1급 $\overline{\mathbf{Q}}$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 녀)경기 전련맹전이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 남자축구 홰불팀과 만경봉

팀. 리명수팀과 경공업성팀, 녀 자축구 봉화산팀과 갈매기팀, 월미도팀과 황룡산팀사이의 경 기가 26일에 있었다.

화불팀과 만경봉팀사이의 경 기는 시작부터 치렬하게 벌어졌

다.전반전 11 분경 만경봉팀 의 9번선수가 중장거리차넣 기로 먼저 멋있 게 한꼴을 넣었 다. 만경봉팀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드센 공격 을 들이대여 후 반전 28분과 34분경에 련속 득점하였다. 결 국 경기에서는 불팀을 3:2로 이겼다. 리명수팀은 자기의 전술적의 도를 잘 살리고 선수들의 결합 능력을 높임으로써 경공업성팀 과의 경기를 4:1이라는 압도적 인 점수차이로 결속하였다.

녀자축구경기에서 봉화산팀 과 월미도팀은 3:0, 7:0으로 각각 상대방을 눌렀다.

한편 25일에 있은 남자축구

경기에서는 평양팀이 묘향산팀 을 2:0으로 이겼으며 4. 25팀 과 기관차팀은 1:1로 비졌다. 녀자축구경기에서는 4.25팀 이 묘향산팀을 1:0, 소백수팀이

리명수팀을 3:2, 압록강팀이 청천강팀을 1:0, 봉화산팀이 평 양팀을 2:1로 이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 기들이 벌어지게 된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공화국선수권대회 배 구, 모형항공(자유비행)경기들 이 사리원 등지에서 계속 진 행된다.

온 나라에 끓어번지는 체육열 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진행되고 있는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남, 녀)경기들이 다음주에 결속되게 된다.

27일에는 남자축구팀들인 4. 25팀과 월미도팀, 압록강팀 과 기관차팀사이의 경기가, 녀 자축구팀들인 평양팀과 만경봉 팀, 4. 25팀과 소백수팀, 묘향 산팀과 청천강팀사이의 경기가 있게 된다.

28일과 29일에는 리명수 팀과 갈매기팀, 압록강팀과 황룡산팀, 봉화산팀과 만경봉 팀, 월미도팀과 평양팀사이의 너자축구경기가 진행된다.

중국방분 최고검찰소대표단 출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리철 제1부소장을 단장으 단이 26일 평양을 출발 하였다. 하였다.

비행장에서 최인학 최고검찰 소 부소장과 도경창 주조 중화 로 하는 최고검찰소대표 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전송

【조선중앙통신】

섯 회 령 도 자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군 인정신을 따라배워 풀먹는 집집승을 많이 기르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섯도 많이 재배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 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

회령대성담배공장은 자체의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착실히 잘하고있는 단위 이다. 버섯생산기지 하나만 놓 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공장에서는 원가를 크게 들이 지 않고 시에 흔한 강냉이속을 리용하여 기질을 만들어 영양가 높은 버섯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량의

대 성 답 배 공 장 버섯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이곳 버섯생산기지는 실리있 게 꾸려져있다.

버섯재배장은 직사광선이 비 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고 훈 훈하다. 겨울에도 버섯이 자라 는데 필요한 온습도보장에 매우 편리하다.배양실에서 자래운 종균을 접종한 버섯기질도 자체

로 만들고있다. 공장자체로 종균과 기질을 생 산하니 버섯생산을 안전하게 하 고있다.

이들은 야외버섯재배장도 잘 리용하여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야외버섯재배장에서는 4 월부터 1 1월까지 버섯을 생산 하고있다. 버섯재배장에서 1차 로 버섯을 딴 기질들을 야외버 섯재배장으로 옮겨 땅에 묻고

그우에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게 나래를 잘 덮어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질들에서 여러차례 버섯을 생산한 다음에는 그것을 말리워 돼지먹이로 리용하고

땅속의 기질들에서 버섯이 자

있다. 공장에서 버섯을 길러 그 덕 을 보고있는데는 여러가지 방법 으로 버섯을 많이 재배하여 인 민들의 식생활을 결정적으로 개 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근기 있게 관철해온 공장일군들의 숨

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공장에서는 과학적인 버섯기 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여러 종류의 버섯을 더 많이 재배하 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리은 남

조국강산의 귀중한 재부-천연기념

날과 달이 흐를수록 천만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울려주고있 는 시대의 명곡-《조국찬가》 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명곡에도 있듯이 이 땅 그 어 디를 가보아도 우리 사는 내 조 국이 제일이라는 크나큰 민족 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재부들이 가득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공화국이 다. 그 하많은 재부들가운데는 우리 당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잘 보 존판리되고있는 천연기념물들

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풀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

우리 나라에는 경치좋은 산과 강하천이 많고 지리, 지질, 기후 조건이 좋아 지하자원과 동식물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천연기념물이란 우리 나라 자 연중에서 학술적 및 풍치적의의 가 있는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대표적 인 자연물을 말한다.

천연기념물가운데는 희귀한 동식물이나 특산동식물, 특이한 지리, 지질대상 등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수백개의

천연기념물들이 있다.

장군님께서는 천연기념물보존 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 이 헤아리시고 언제나 깊은 판 심을 돌리시였으며 천연기념물 관리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 를 강화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 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4 (1955)년 12월 13일 내 각결정 제 9 3 호 《명승지 및 천 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 정》을 내보내도록 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9 (1980)년 2월 18일 정무 원지시 제27호 《천연기념물 을 철저히 보존관리할데 대하 여》를 내보내도록 하시여 수백 개의 천연기념물들을 제정공포 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천연기념물보호관리 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 는 지난 수십년동안 새로운 천 연기념물들을 적극 찾아내고 보 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조국강산이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여왔다.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들가운 데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목란도 있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 지하는 강서약수도 있으며 세계 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분포되여 있는 특산종인 클락새와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상같아 예로부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구룡

폭포도 있다. 민족의 자랑인 정방산목란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의 크나큰 은정속에 조선의 국화 로 더욱 활짝 피고있는 뜨거운 사연이 깃든 천연기념물이다. 이 목란은 정방산의 성불사옆

에서 자라고있다. 일찌기 창덕학교시절 정방산 수학려행때 처음으로 보신 아름 답고 향기로운 꽃나무를 잊지 않으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도 그 꽃을 생각하며 조국을 그 려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 5 3 (1 9 6 4)년 5월 몸소 정방산에 찾아오시여 그 꽃나무 를 찾을데 대하여 가르치시 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실 뜨거운 일 념을 안으시고 주체 5 3(1 9 6 4) 년 8월 정방산에서 끝내 그 꽃나 무를 찾아내여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처럼 좋은 꽃을 그저 함박꽃이라고 부른다 는것은 어딘가 좀 아쉬운감이 있 다고,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였는데 나무에 피 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에서 《목란》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으며 굳세면서 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 대로 담은 목란꽃을 국화로 정

꽃은 네가지 징표 즉 아름다 움과 향기, 충실한 열매와 생활 력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런 데 이 네가지를 다 완벽하게 갖 춘 꽃은 그리 많지 못하다.

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목란꽃은 꽃의 네가지 징표를 완전무결하게 다 가지고있는 희

함흥이 고향인 그는 5살때에

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국가종

합선수단 바둑선수로 희망의 나

래를 더욱 활짝 펼쳤다. 조대원

선수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

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008년에 진행된 제1차 세

계지능경기대회 바둑공개개인

경기에서 단연 우승하였다.이

나날에 그는 인민체육인의 값높

랑에 대한 보답의 일념으로 언

제나 심장을 끓여온 조대원선수

였기에 뜻깊은 올해의 1 0월에

또다시 국제경기무대에서 승리

하여 어머니조국의 영예를 높이

중국바둑협회 주석은 우리 나

라의 조대원선수의 경기성과를

두고 조선선수처럼 첫 경기에서

진 상태에서 나머지경기들에서

모두 이기고 우승한것은 처음이

다, 이것은 조선의 조대원선수의

당의 한량없는 그 믿음, 그 사

은 영예도 지니였다.

설졌다.

동하고있다.

귀한 꽃이다.

정도이다.

정방산목란은 원대에서 나온 1 0여개의 가지가 자라 퍼진 나 무로서 높이는 2. 1 m, 갓직경은 2m, 잎사귀크기는 길이 6~ 20cm, 너비 4~10cm로서 길 둥근모양이고 서로 어긋나게 붙 어있다. 잎의 웃면은 윤기나는 풀색이고 뒤면은 회록색빛이 도 는 풀색을 띠는데 꼭지가 나있 다. 5~6월에 1년생가지끝에 직경 7~10cm정도의 크고 흰 색의 아름다운 꽃이 아래를 향 하여 피는데 흰 꽃잎은 6~9개

정방산목란은 8~9월에 두 벌꽃이 피는것이 특징이다. 열 매는 9월경에 닭알모양의 검 붉은색으로 익는다. 독특한 꽃 향기는 고급향료로 이름높으며 충실한 열매는 기름이 많아 기 름원료로 되고 청초한 잎사귀 와 줄기, 뿌리는 귀중한 약재로 도 쓰인다. 강한 생활력을 가지 고있어 우리 나라 북부고산지 대를 제외하고 그 어디서나 자 랄수 있으며 해로운 벌레가 범 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위력을 가지 고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천연기 념물로는 또한 금야은행나무를 들수 있다.

금야은행나무는 우리 나라에 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은행나 무이다. 이 나무는 금야군 동흥 리에 자리잡고있는 안불사뒤 언 덕진 곳에 있다.

이곳에 뿌리내린 때로부터 이 나무는 지금까지 2 000여년 의 년륜을 새겨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 로부터 10년전인 주체92

(2003)년 4월 친히 이곳을 찾으시여 옛 건물의 풍치와 잘 어울려 자라는 이 나무의 나이를 몸소 가늠해보시며 오래 자란 나 무이므로 보호관리를 잘해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금야은행나 무는 우리 나라의 손꼽히는 천연 기념물의 하나로서 학술연구상 의의가 있고 이 일대의 자연경치 를 돋구어주는것으로 하여 귀중

한 재보로 되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4 0여m, 밑둥 둘레는 16m이다. 나무갓의 직 경은 동서남북으로 수십m이며 우산모양의 생김새를 이루고있다. 나무그늘의 면적은 1 800m² 나 된다. 줄기는 1.5m의 높이 에서 세갈래로 갈라졌으며 우로 올라가면서 많은 가지를 치고있 다. 금야은행나무에는 해마다 많은 열매가 달리며 가을철 단 풍잎이 떨어지는 량은 2t 정도 된다.

멀리서 보면 작은 산같고 나 무밑에 들어서면 깊은 숲속에 들어선것 같아 금야은행나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수록 웅장한 느낌을 안겨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 물들에는 이 땅의 모든 재부를 명실공히 인민의것으로 더욱 빛 내여주는 우리 당의 은정이 뜨 겁게 슴배여있다.

나라의 재부이며 민족의 자랑 인 천연기념물들은 산은 산마다 명산이요, 골은 골마다 수정같 이 맑은 물 흘러내리는 내 나라 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앞으로 도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애국주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 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 훈

떠나고싶지 않은 곳,

안팎으로 멋쟁이! 이것이 락랑구역채과 도매소를 찾았던 사람마 다 한결같이 터치는 감 탄의 목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

🗕 서 생산분화와 생활 문화를 세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

하얀 타일을 일매지 게 붙인 2층짜리 건 물,볼수록 산뜻한 이 도매소를 찾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것이 비 둘기뗴이다. 하늘에서는 새하얀 비

둘기들이 뗴지어 나는가 하면 포장을 번듯하게 하 구내에 자리장은 독 한 구내에 자리잡은 동 물사에서는 꿩이며 칠면 조 등이 푸드득거리기도 하고 저마끔 깃을 다듬 0 기도 한다.

月

1000여**㎡**의 새 품 종 잔디밭이며 바람에 잎새 살랑이는 수백그루 의 나무들, 보기만 해도 **フ**- 청춘의 희열이 샘솟는 배구장이며 정구장, 바 드민론장, 로라스케트

장, 손색없이 꾸려진 목욕탕, 리 발실, 미용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선경이 꽃 핀 이 자리가 몇년전까지만 해 도 흙이 산같이 쌓여있던 곳이 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지

구 역 채 과 도 매

수천m³의 토량을 단숨에 처 리하고 5 000㎡에 달하는 부지면적에 2층짜리 건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락랑구역채과도매소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자기 손으로 심은 자력갱생의 나무에서 마음껏 향유의 열매를 거두어들이자!

이것이 지배인 림만근동무를 비롯한 도매소의 전체 종업원 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굳센 의지였다.

자기 집을 꾸리는 일인데 무 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면서 성 의껏 준비한 공사용자재들을 안고 달려온 각 상점 봉사자 들,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따라세운 초 급당일군…

건물공사를 동시에 내밀기 위 해 아글타글 애쓰는 이들의 모 습에 감동되여 락랑영예군인수 지일용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 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 들의 성의를 합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상업봉 사단위를 추켜세우는 일인데 우리도 한몫하자고 하면서 이 굣 종업원인 박은희동무의 편이며 인민군군인들이 건설장 으로 달려왔다. 그 수많은 고마 운 사람들의 모습에 더 큰 힘을 얻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더욱 분발하여 공사에 떨쳐

맞들이를 들고 혼합물을 나르 느라 손이 퉁퉁 부어오르고 밤 낮없이 일하느라 입술이 터갈라 졌어도 그들은 그 수많은 블로

크를 자체의 힘으로 찍었고 층 막공사도 손색없이 해제낄수 있 었다.

시기시기 제기되는 상품확보 와 판매 등으로 바쁜 속에서도 신대석, 김광운, 황수길, 김창 덕, 김의식, 리명환동무를 비롯 한 이곳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

에 새 건물을 자체의 힘으로 훌

륭히 일뗘세울수 있었다. 비록 건물은 요란하지 않아 도 그것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 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 력갱생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는 소중한 결정체였다. 하기 에 이들은 새로 일떠세운 건물 벽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 다!》라는 구호를 큼직하게 써 붙이였다.

자기들의 땀이 스며있는 일터 여서 이들은 마당에 티검불 하 나 떨어질세라 비질을 하고 나 무에 물을 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 의 머리속에는 자기들의 일터를 더욱 훌륭히 꾸릴 보다 큰 구상 이 움트고있다. 구내공간을 보 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슴우 리도 지을 계획이다. 수종이 좋 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이미 꾸려놓은 버섯재배장에서는 느 타리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할 결심이라는 이들의 결의는 또 얼마나 들을수록 신심에 넘쳐있 는것인가.

자기 힘을 믿고 보다 큰 행복 의 래일을 향해 달리는 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인양 비둘기 뗴는 오늘도 창공높이 날고 또 난다.

본사기자 박옥경

우승한 조대윈선수 2013년《상려컵》 항주국제도시바둑경기대회에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7 일까지 중국에서 2013년 《상려컵》항주국제도시바둑경 기대회가 진행되였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 국, 로씨야, 카나다, 스위스, 미 국 등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바둑선수들이 참가하였 다. 이 경기대회는 2001년 부터 해마다 진행되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수들의 사상정신상태 와 투지, 민첩성과 기술은 체육경기의 성과를 결정합

2중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 보유자를 비롯하여 좋은 전적을 가지고있는 바둑강자들이 많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바둑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경기대회 개인경 기에서 우리 나라의 조대원선수 가 단연 제 1 위를 쟁취하였다. 경기는 매 선수가 모두 9회전

을 진행하여 획득한 총점수를 놓 고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바둑경기는 높은 정신력과 지 능의 대결일뿐아니라 담력과 인

내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조대원선수는 비록 1회전에 서 진 상태에서 2회전을 해야 하는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순간 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전술 적의도와 특기를 잘 살리면서 경 기를 자신만만하게 진행하여 2 회전에서부터 6회전까지 맞다 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쳤다. 남조선선수와의 7회전은 우 승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경

자신만만한 배심에 넘쳐 지금까 지 진행한 경기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할 대담한 방안들을 세웠다.

던 감독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승리의 열쇠를 확고히 틀어쥔 로 맞다드는 선수들을 이겼다.

하고 우승컵과 상장을 받아안은 조대원선수는 평양의 하늘을 우

바둑의 세계에 들어섰다. 당의 은정속에 재능의 싹을 아름답게 꽃피워온 그는 17살때부터 조

기였다. 남조선선수는 우승후보로 지 목되여있었다. 그는 1회전부터 6회전까지 다 이기고 7회전에 참가하였다.

리봉일감독과 조대원선수는 분석하고 능동적인 전술과 높은

7회전의 초반단계에서는 서 로 어슷비슷했다. 긴장한 한초한 초가 흘렀다. 그때 조대원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어머니조국이 지 켜본다는것을 명심하자고 당부하

그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형세 와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민첩한 수읽기로 중반단 계에서부터 확고한 우세를 차지 하면서 남조선선수를 피동에 몰 아넣었다. 하여 두집반이라는 차이로 남조선선수를 통쾌하게 타승하였다.

조대원선수는 8회전과 9회전에 서도 평시에 련마한 훌륭한 기술 마침내 영예의 제 1 위를 쟁취

러러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해주시 승마동 61인민반 문서정가정에서

해주시 승마동에서 살고있는 문서정동무의 가정은 사회와 집 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

올해에도 이 가정에서는 당 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해주시 장방협동농장에 찾아가 애국의 열정안고 마련 한 수십i의 거름과 많은 영농 **어**를 물자들을 넘겨주었다. 물자들을 넘겨주었다.

협동벌에 꽃펴나는 이 가정 의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위 대 한 령

위 대 한 형 도 자 **大**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大**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서도 혁명적 량심을 지니고 진실하게 성심성의로 보답하여야 합

LICH. » 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고 돌 은 영광과 사랑이 너무도 크 🔘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 고 고마와 끝없는 격정의 눈 🕳 물을 흘리였다.

정신력과 실력이 대단히 높다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자 🕕 행을 헤아리시고 뜨거운 은정라난 아들을 영광의 대회장 🗗 을 베풀어주시였다. 것을 실증해주는것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 🔼 조대원선수가 거둔 성과는 당 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국건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에 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수 있겠 큰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비약의 총진군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 는가.

밤은 깊어가도 온 가족이 보 본사기자 리성호 | 답의 일념으로 잠들줄 몰랐다.

《이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 고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

그때부터 가정에서는 많은 거름 등을 마련하여 해주시 다 ㅎ글 바면하여 해주시 ■ 장방협동농장 농장원들에게 □ 너거즈며 시 느 넘겨주면서 농업생산성 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러달라고 부탁하 였다.

농장원 아버지, 어머니, 형 바 님, 누나들은 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 고 자기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고 좋은일하기를 많이 하여 원수님께서 아시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겠다는것을 굳 ㆍ게 약속하자고 한 원일흥학생 의 호소는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뿐만아니라 이 가정에서는

모와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원일흥학생의 소

또다시 크나큰 영광을 받아 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 안은 원일흥학생은 보답의 마 음 따라세우며 오늘도 배움의 5점꽃을 더 활짝 피우고 부모 와 함께 사회주의농촌을 힘껏

돕고있다. 본사기자 전철호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국가파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ㅡ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Ш

겨울철은 잔디가 생리적잠자기 에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봄, 여름,

가을보다 관리가 힘들지 않다. 추운계절형잔디들의 겨울나 이관리에서 기본은 늦가을에 잔 디밭관리를 잘하는것이다.

1 1월에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기때문에 이 시기 추운계 절형잔디들은 생장이 정지되기 시작한다. 이때는 보통 강수량 이 적은 시기이므로 가을철잔디 밭관리에서처럼 물주기를 적당

히 하는것이 좋다. 사이에 대기온도가 0℃ 때 물 을 충분히 주는것은 잔디의 풀 색기일을 연장하고 안전하게 겨

울을 나게 하는데서 중요하다. 충분한 물주기라는것은 물을 뿌 리가 있는데까지 주는것인데 깊 이 15㎝이상 되는 곳까지 스

며들게 하면 된다. 1 2월부터는 해충이나 병원

1 1월 하순부터 1 2월 하순

승 마 풍 습 (1)

균에 대해 크게 주의를 돌릴 필 요가 없다. 그러나 눈이 녹을 때 회색눈썩음병이나 분홍색눈썩 음병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눈이 내리기 전에 티람, 만코쩨브, 에 타졸과 같은 살균제를 한번 쳐 주는것이 좋다.살균제는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히 쳐야 한다. 눈썩음병을 막기 위해서는 가 을에 잔디깎기를 정상적으로 진 행하여 잔디잎들이 서로 엉키거

나 눈밑에서 잎들이 덧쌓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잔디밭의 눈은 치지 않아도 되는데 잔디밭우의 눈을 밟아 눈밑의 잔디들이 눌리우지 않도 록 하며 눈을 덧쌓아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봄에 눈이 녹기 전에 잔디밭 의 눈을 반드시 쳐주어야 한다. 잔겨이삭, 호밀풀은 왕꿰미풀 이나 김의털에 비하여 눈썩음병

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2월 하순에 하루평균기온이 0℃이상으로 올라가 토양이 녹 으면 봄철물주기를 해야 한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

실장 김룡석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 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미림승마구락부가 준공된 소식으 로 하여 지금 온 나라는 크나큰 다. 이런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미림승마구락부가 로동당시대 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섬으로써 이 땅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말발굽소리가 높이 울려퍼질수 있게 되였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미림승마구락부의 준공으로 하 여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

생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오랜 력사

적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승

마풍습이 더 활짝 꽃펴날수 있

게 되였다. 승마운동은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온 우리 인민의 우수한

풍습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인민 의 민족체육으로서는 달리기와 말타기, 칼쓰기와 창쓰기, 씨 름, 그네타기, 바줄당기기, 수

박, 택견 등이 유명하였다. 특히 말타기와 활쏘기, 말타 고 하는 활쏘기는 오래동안 조 선의 《국기》로 인정되여왔 다. 세종을 비롯한 조선봉건왕 조의 여러 왕들이 자주 《우리 의 장끼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말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길들 여온 집짐승의 하나이다. 말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성질로부터 사람들과 친숙하기 쉬웠고 또 사람에게 복무한 력사도 오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늙은 말 이 길을 안다.》.《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 람의 마음을 안다.》,《저는

말도 바른 길로 간다.》 등과

도 수많이 전해져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 3 권에 서 술되여있는 백마에 대한 추억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울려주

항일무장투쟁시기 소왕청방 어전투가 한창 벌어질 때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마 를 타시고 비발치는 탄막속에서 전투를 지휘하시느라 입고계시 는 외투안에 댄 털에까지 불이 달린것을 전혀 감촉하지 못하시

바람을 맞받아 달리던 백마가 바람을 등졌을 때에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투에 불이 달렸 다는것을 느끼시였다. 바로 이 러한 때 비호같이 달리던 백마 가 움푹하게 패인 눈구뎅이앞에 서 속력을 늦추며 슬그머니 앞 발을 접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구뎅이속으로 굴러들어가게 되시였다. 이렇게 되여 외투에 달렸던 불은 꺼지였다. 당시 백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는것을 이 말이 도대체 어떻 게 알아챘을가? 도저히 해명

마의 두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할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라고 회고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도 그 비결을 알아낼 방법 이 없다, 백마의 비상한 판단력 은 설사 생체적우점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상처를 내면서 까지 자기 주인을 구조하는 그

민족 의

같이 말과 관련된 속담, 성구들 놀라운 헌신성은 어디에서 출발 점을 찾겠는가, 세상에는 충견 애마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오 히려 그것을 충마애견이라는 말 로 고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감동깊게 서술하시였다. 이처럼 말에 대한 사연깊은 이야기들은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갈

피에도 새겨져 대를 두고 전해 지고있다. 사람이 말을 집짐승으로 부리 기 시작한것은 대체로 B.C. 4 0 0 0년경이라고 하며 승마풍 습이 시작된것은 B. C. 2000

년경이라고 한다. 말은 용도에 따라 각이하게 쓰이였다. 제일 많은것이 역마 (각종 부림말)였고 다음으로는 밭갈이용말, 승마용말, 군마, 쌍붙임말,전마(체신말) 그리 고 망돌가는 망말 등 여러가지

또한 말은 그 가치와 우렬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웠다. 우수 한 말을 기린마, 준족마, 준마, 상마(상등말), 천마(천리마), 명 마, 우준마, 룡마, 량마 등으로 불렀으며 우둔하고 성질이 사납 에서 《내 몸에 불이 달렸다 고 거칠며 갈개는 말들을 악마 (나쁜 말), 황마(거친 말), 한마

전 통 적 인 말고기는 식용으로, 말가죽은 가죽주머니와 갖신제작에 쓰이 로 되였다. 였고 장고와 북과 같은 악기제 여기서 민첩하고 기동력있는

을 높이는 거름으로 , 땔감원료 로 쓰이였으며 지어는 종이원료 로도 리용되였다. 공학에서 마력이라는 단위를 널리 쓰고있는데 이것 역시 말 과 관련된것이다.

작을 위한 재료로도 리용되였

다. 말의 배설물은 논밭의 지력

우리 나라에서 말을 부린 력 사는 매우 오래다. 고고학적자 료에 의하더라도 고조선의 전반 기문화에 속하는 이른무덤들인 료동반도의 루상무덤과 정가와 자 6512호무덤,조공가유

의 고유한 마구류가 나왔다. 고조선사람들은 구리로 말자 갈을 만들어 말을 부리였으며 말치레거리도 만들어 말들을 장 식하였다.

적, 와룡천무덤 등지에서 조선

이였다. 위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가

를 제일 잘한것은 고구려사람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말타기

제일 강했던 때는 고구려때 였습니다. 고구려때에는 누 구나 다 어려서부터 말을 탈 줄 알았고 활을 쏠줄 알았습 LICH.»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탈줄 알고 활을 쏠줄 알았

다. 고구려시기 인재를 뽑을 때

말탈줄 알고 활을 잘 쏠줄 아는

말타기와 적을 타승하는데 절실 히 필요한 말타고 하는 활쏘기와 칼쓰기, 창쓰기가 우선시되였다. 고구려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고 말타기를 생활상 요구로 여기고있었다는것은 고 구려시조왕인 고주몽(동명왕)의 건국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 다. 해와 달의 아들로 자부하는 주몽은 어려서부터 말타기 등 재

보 등 동료들과 함께 남으로 향 하여 건국을 실현하였다. 고구러사람들의 생활에서 말 은 뗼래야 뗼수 없이 귀중한 존 재였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 진 온달이야기도 잘 말해준다.

주가 비상하였으며 어머니가 구

해준 준마를 타고 오이, 마리, 협

미천한 온달은 자기에게 시집 온 공주가 국가말목장에서 키우 던것을 사다가 정성껏 기른 말 을 타고 사냥경기에 참가하였 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락랑언덕에 모여 나라 의 모든 무사들이 참가하는 사 냥경기를 벌리였다. 온달은 이 사냥경기에서 그 누구보다도 빨 리 말을 몰아 질풍같이 달리여 사나운 짐승들을 잡아 우승하였 으며 그 길로 고구려를 침공한 외래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

에 참전하였다. 말타고 하는 고구려사람들의 용감한 사냥모습은 고구려벽화 무덤들인 춤무덤, 약수리무덤, 사냥무덤, 대안리 1 호무덤 등에

가 하는것이 하나의 평가기준으 잘 반영되여있다. 여러 무덤벽 화들에는 고구려무사들이 말타 기와 활쏘기의 능란한 솜씨로 범과 곰, 노루들을 잡는 통쾌한 장면을 그려놓음으로써 고구려 사람들의 말타고 하는 활쏘기기 술이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 람들은 그 어떤 침략자들도 두 려움 모르고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용감성과 무비의 실력을 키워나갔다. 고구려사람들의 말타고 하는 무술경기는 사나운 맹수들을 대

사냥과정을 통하여 고구려사

상으로 하는 사냥경기만이 아니 였다. 일상적으로 점수따기경기 로 하는 등 여러가지 경기방법 과 규칙에 따라 말타기와 활쏘 기를 익혀나갔다. 그러한 력사 적사실이 덕흥리무덤벽화에 반 영되여있다. 덕흥리무덤벽화에는 고정과

녁에 대한 말타고 하는 활쏘기 련마가 진행된 모습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다.벽화에는 4명의 경기자와 2명의 심판원 그리고 한명의 기록원이 그려져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이것은 서 쪽뜰안에서 말타고 하는 활쏘기 경기 〈마사희〉를 하는것이 다. 》라는 내용의 설명문이 씌 여져있다.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널리 장 려된 말타기와 말타고 하는 활 쏘기, 칼쓰기, 창쓰기는 나라를 지켜 싸우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용감성과 무술을 익히기 위한것 이였다. 고구려사람들은 기병의

전투능력을 높이며 동시에 말을 적의 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보호시설을 도입하였으며 말 을 제어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 자(발디디개)를 도입하였다. 일 반적으로 기마술이라고 할 때 말 교삐의 조절, 등자의 활용, 안장 에 붙인 몸의 앞뒤좌우균형의 유 지 이렇게 세가지 요소를 잘 활 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자와 말자갈이 중시되는것이다.

산을 잘 톺아오르고 힘이 센 말 이였다. 강원도 철렁에서 드러난 고구 려의 쇠말모형들은 다같이 다리

가 짧은것이 특징이였다.(《고

구려이야기》 사회과학출판사

고구려말은 비록 키는 작지만

2010년 60-62폐지) 또한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반 영된 말들도 대개가 다리가 짧 다. 하지만 보기에도 무거운 투 구(마면갑)를 쓰고 온 몸통에 쇠찰갑을 뒤집어쓰고 용감히 달 리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중무 장한 말을 개마라고 하였다. 개 마를 탄 고구려기병을 개마무사

라고 불렀다. 고구려말은 자기가 뒤집어쓴 투구갑옷의 중량과 함께 중무장 한 기병의 중량을 견디여낼 정 도로 힘이 세고 산도 잘 톺아오 르군 하였다.

등자는 세계적으로 고구려사 람들이 제일 선참으로 창안도입 한것으로 보고있다.

등자는 말에 오르내리는 수 단, 두다리로 말을 제어하기 위 한 수단이였다. 고삐를 쥐지 않

고 말우에서 하는 활쏘기와 칼 쓰기, 창쓰기는 등자를 어떻게 밟고 말을 자기 의사에 맞게 제 어하면서 쟁기를 쓰는가에 달려 있다. 고구려기병들이 신었던 못이 박힌 청동신발은 적을 제 압하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말등 자에 온몸을 고정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중무장한 고구려개마무 사를 그린 무덤벽화로서는 4세 기의 안악3호무덤(고국원왕무 덤)과 강서 덕흥리무덤(408 년)벽화 등이 대표적이다.

고구려의 상비무력중에서 기 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력사기 록들에 있는 《철기병 5천명을 거느리고 진격하면서 적을 들이 쳤다.》(《삼국사기》고구려본 기 동천왕 20년), 《보병과 기 병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 케 하였다.》(《광개토왕릉 비》) 등의 자료들은 고구려에 중무장한 개마무사들의 집단이 하나의 대부대를 이루고있었다 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의 중무장한 개마무사 집단은 국방에서 큰 역할을 하 였다. 위력한 타격 및 방어군집 단으로 존재한 고구려기병집단 은 오랜 력사적기간 국가의 성 새와 방패가 되여 고구려를 지 켜냈다. 사람들은 고구려이후 1 5세기때에 와서도 강대한 고 구려를 그리워하며 추억하군 하

이처럼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 력의 밑바탕에는 사람들이 어려 서부터 즐겨한 말타기와 말타고 활쏘기, 창쓰기, 칼쓰기의 오랜 전통이 깔려있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 희 승

은혜로운 月 训 가 안겨살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참된 삶이 꽃펴나는 우 리 공화국을 동경하며 칭송하고 있다. 《인정의 바다. 사랑의 대하 가 흐르는 이북》, 《세상을 아무 리 둘러보아도 이북처럼 살기 좋 은 나라는 없다. 》, 《이북의 사회 주의가 제일이다. », 《이북은 우 리들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

진정에 넘친 이 목소리들에서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믿고 따르는 남녘겨레들의 절절 한 마음들을 엿볼수 있다.

언제인가 경상남도에서 사는 한 어부는 동료들에게 공화국 에서는 인민대중이 인간의 참 다운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 였다고 한다.

《이북은 인민대중의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서 시위하며 민주 민권이 개화되는 참된 사회이고 전민이 만복을 누리는 리상향이 다. 근로민중이 안정되고 행복 한 삶을 향유하는 이북이야말로 민중복지의 참사회라 해야 할것 이다. 》

인천의 한 주민은 집에 찾아 온 동료들앞에서 《우리와 한지 맥으로 잇닿아있는 이북에서는 비정규직로동자라는 말도, 실업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잡지 《백두-한나》10월호를 발행하 였다.

잡 지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경축 로농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 중시위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공화국창 건 65돐에 즈음하여 중국의 당 자라는 말도 모르고 산다니 정 말 꿈같은 일이다. 이북에서는 민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의 혜택으로 로동자들이 아무런 근 심걱정없이 일하고있다고 한 다. 우리 이남로동자들도 그런 희한한 세상에서 살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유롭고 행복 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격찬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 와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떨쳐 나섰던 로동자들이 당국의 악랄 한 탄압으로 억울한 죽음까지 당하고있다. 강제해고당한 로동 자들은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 면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있 지만 그들에게 일자리가 차례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파쑈악법의 쇠사슬에 묶이워 초 보적인 인권마저 빼앗기고 불안 정한 생활터전에서 근심과 걱정 으로 그날그날을 이어가는 남조 선의 근로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찬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 고있다. 서울의 어느 한 회사에서 일

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과

하는 로동자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초보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 고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 면서 《이북사회는 우리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북사회야 말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 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복 된 삶을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 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른 로동자도 《옳은 말이다. 이북

의 로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른다고 한다. 쩍하면 해고되고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하는 우리들과는 하늘땅 차이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 로부터 자주권과 온갖 사회정치 적권리를 보장받고있는 이북인 민들이 정말 부럽다. 》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북남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 하여 평양에 왔던 울산의 한 인 사가 터놓은 이런 말도 있다. 《민중의 참된 삶과 행복한 생 활이 법적으로 담보되는 사회에 서 살고싶은것이 나의 소원이 다. 동서고금 그 어디를 둘러보

아도 이북과 같은 사회제도는

없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

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

리에 참가하고있다. 그리고 정

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사회 이 온 겨레가 함께 안겨살 은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로 동과 휴식, 무상치료 등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진정한 리상사회, 참된 복지 사회를 찾아 한생을 바쳐왔다는 서울의 한 종교인은 우리 공화 국의 현실을 소개한 출판물을 보고나서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한생토록 찾고찾던 참된 민중의 복지사회는 다름아닌 우 리와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이 북에 있다. 이북사회에서는 만민 이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와 행복 을 누리며 근심걱정없이 모두다 화목한 대가정에서 만복을 누리 고있다. 참으로 지구상 그 어디 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설같은 세상이다. 한 외국인이 이북을 보고 〈인간사랑의 리상이 현실로 된 나라〉라고 감탄한것이 정말로

우연치 않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 는 로동자는 《북에서는 가는 곳 마다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 함!>이라는 구호가 나불어있고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과 법의 보 호속에 모두가 활기에 넘쳐 생활 하고있다고 한다. 공화국의 품만

로운 품이다. 》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로조활동가는 투 쟁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이런 이 야기를 하였다.

步

《이남의 〈국회〉에는 로동자들 의 권리와 리익을 지켜줄 로동 자대표가 없다. 이 땅에서는 로 동자들이 사회의 최하층인생을 살고있지만 이북에서는 로동자 들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뗘받 들리우고있다. 그것은 로동자대 표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 로 선거되여 인민의 의사에 맞 는 정치를 펴나가는데 참가하는 사실만으로도 여실히 립증된 다. 로동자중시의 이북사회가 참으로 그립다.》

이렇듯 남녘겨레들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당 당히 행사하며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가는 우리 인민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 다. 자기들도 우리 공화국의 인 민들처럼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 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남녘겨레들은 스스로가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고있다.

합회대표단 등 여러 대표단, 재 중조선인예술단이 조국을 방문 한 소식과 10.4선언발표 6돐 기념행사가 재중조선인총련합 회에서 진행된 소식을 실었다.

자거리에서의 새집들이, 제9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라 진-하싼철도개건구간 개통식을 비롯한 조국소식들과 국제소식 들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날이 드러난 《선거》협잡행위

최근 지난 괴뢰대통령선거당시 감행된 비렬한 여론조작행위에 괴뢰군부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 러나 온 남조선땅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얼마전 한 야당의원이 폭로한데 의하면 괴뢰 군싸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은 《선거》전야에 야당 후보들을 헐뜯고 현 집권자와 《새누리당》을 춰올 리는 글들을 인터네트홈페지들에 런속 싣는 등 모략선전을 일삼았다. 이번에 덜미잡힌자들은 지 난 시기 심리전에서 악명을 떨쳐 괴뢰국방부의 《표창》까지 받은 《정예요원》들이라고 한다. 그들 의 이전 우두머리는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판을 해먹는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괴뢰패당이 현 집권자 의 당선이 위태롭게 되자 저들이 장악하고있는 수단과 인력을 총발동하여 여론조작에 달라붙었 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보수패당은 여 당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몰아가는 모략글들 을 인터네트에 대대적으로 올리면서 판세를 뒤 집으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여기에 괴뢰군부까 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것이 이번에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것이다.

괴뢰군싸이버사령부것들의 비렬한 여론조작행 위는 정보원의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공공연히 감 행되였다. 지난해 괴뢰군싸이버사령부가 정보원 으로부터 4 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지급받은 사 실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로써 보수《정권》 연장을 노린 《새누리당》패와 괴뢰정보원, 군부 등 파쑈독재세력의 추악한 공모결탁, 조직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동시에 지난 《대통령선거》가 괴뢰패당의 모략과 권모술 수로 조작된 전대미문의 특대형부정《선거》라는 것도 공인되였다.

가뜩이나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대통령선 거》공약의 폐기 등으로 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져있는 피뢰패당으로 서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처음에 보수패거리들은 저들특유의 철면되성 그대로 야당이 정쟁을 위해 《비밀안보조직》인 싸 이버사령부를 《희생물로 삼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도적놈 개 꾸짖듯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대한 남조선 각계의 요구가 비발치듯 하자 급해 맞아 《군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느니,《군자 체에 맡겨야 한다.》느니 하며 발뺌질하고있다. 괴뢰군부는 또 그들대로 졸개들의 범행자체는 마 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개인적인 소행으로 둘러치면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변명에 급급 하고있다. 괴뢰군싸이버사령부의 예산에 정보원 의 자금이 흘러든 사실을 놓고 《일부 예산을 정 보원에서 받아도 그것은 국방비》라느니, 《정보원 과는 협조관계일뿐 지시관계는 아니》라느니 하 는 동이 닿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는것이나 괴뢰국방부의 《자체조사》가 시작된 후 싸이버사 령부 요원들의 글 수백건이 갑자기 간데없이 사 라진것 등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현 집권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협 잡행위에 괴뢰정보원과 군부패거리들이 깊숙이 개입되였다는것은 누가 보아도 부정할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는 추 악한 정치깡패무리임이 틀림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날로 높아가는 《정권심 판론》의 목소리와 무섭게 타번지는 초불투쟁에 대해 괴뢰패당은 그 누구를 탓할것도 못된다. 보 수《정권》을 연장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해 《대통령선거》를 불법무법의 협잡행위로 치 른 현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 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집권세 력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 고 독재체제구축에 피눈이 되여 날뛴 모략기구 들의 해체와 현 집권자의 사과, 그의 《대통령당 선무효》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

괴뢰패당이 모략사건의 진상을 은페하려고 아 무리 모지름을 써도 소용없다. 추악한 정치협잡 행위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괴뢰패당은 그 대 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 과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괴뢰집권세력의 범죄 적인 파쑈모략과 정보정치는 그들자신의 파멸만 을 앞당겨줄뿐이다.

허 영 민

《백두-한나》 10월호

경 애 하 는 과 국가지도자들이 축전을 보내

온 소식을 실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이 꽃바구니들을 진 정하고 축전채택모임, 좌담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경축행 사들을 진행한 소식들을 집중편

집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 에 즈음하여 《절세의 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마크에 새겨진 마치 와 낫과 붓》, 《영광스러운 조선로 동당창건 68돐을 열렬히 축하합 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 였다. 또한 《장군님과 CNC(13), 〈프레스도 CNC화〉》, 《날로 변모

되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친 근한 형제적벗인 중국인민들에 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중 조우의는 만대에 푸르리》.《조 선-하나의 대가정》 등의 글들이 게재되였다.

공화국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재중조선인총련 합회대표단, 재중조선경제인련

잡지는 새로 일떠선 은하과학

그러다가 사건의 륜곽이 확연해지고 진상규명에 모순과

패당에 의해 정의와 진리를 지 향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파쑈 적인 강제해산놀음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 패들은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 구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 여 활동해오던 통합진보당을 《종북주의적이며 위헌적인 정 당》으로 몰아붙이면서 괴뢰사 법기관에 《위헌정당, 단체관련 대책전문팀》이라는것을 내오고 강제해산을 위한 법적검토놀음 을 하고있으며 10월말경에는 정식 해산재판을 벌려놓겠다고

지어 《새누리당》패들은 《국 적인 악법들이 판을 치고있는것 🗓》 국정감사라는데서 통합진보 으로 하여 인간의 초보적인 자 당해산문제를 주요의제로 내들 고 《자유민주주의의 적이고 위 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당장 해 산되여야 한다. 》고 고아대면서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장기집권야 욕과 정파적목적을 위해서라 면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까지 도 무차별적으로 탄압말살하 는 현 괴뢰보수집권세력의 비 렬하고 파쑈적인 정치모략극 의 극치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남조선에 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활 동의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절대다수 남조선근로대중에 대 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외세자

주화, 반보수투쟁의 앞장에 나 선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전면적 인 탄압으로,정의와 진보를 향 해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거 역하는 용납 못할 파쑈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 타하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반공과 파 쑈의 가증스러운 광풍이 어지럽 게 몰아치던 20세기 초엽이 아 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나 정 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으 며 지어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서도 좌익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그러나 식민지파쑈통치가 지 배하는 남조선에서만은 구시대 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반대 파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거 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그야말로 오늘의 남조선은 정 치적자유도, 인간의 권리도 완 전히 말살된 정치무풍지대, 파 쑈의 란무장이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 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 보당을 《북과 련계된 체제전복 세력》으로, 당의 강령을 《위장 된 북의 강령》으로 여론을 오도 하면서 저들의 비렬한 정치모략 을 합리화하고있는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런결시켜 보려고 발악하는 괴뢰보수패당

의 망동은 결국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대결분자들 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 낼뿐이다.

대변인담화

우리 민족내부에 자주와 민 주, 통일을 반대하고 대결을 추 구하는자들은 비록 한줌도 못되 지만 그러한 파쑈와 반역의 무 리들이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 원을 실현하는데 끼치는 후파는 참으로 크다.

남조선의 각계층 정당, 단체 들은 정의와 진보를 유린말살하 려는 괴뢰패당의 살벌한 파쑈폭 압사태를 외면하거나 수수방관 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말살책동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은 더 엄혹한 파쑈 통치의 암흑속에서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직 투쟁만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함께 괴뢰보 수패당의 통합진보당말살책동 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 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

민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과 정당들도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엄중 한 사태에 대해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현대투쟁의 목소리를 더 욱 높여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주체102(2013)년 10월 26일 양

남조선에 조성된 현 정치적혼 란과 위기는 《유신》독재의 때가 짙게 묻은 괴뢰집권자의 독선적 인 통치방식과 뗴여놓고 볼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집권 자의 안하무인격의 통치방식에 대한 졸개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속에 집권층내부의 알륵과 갈등

이 날로 심화되고있다. 괴뢰집권자는 한때 그 무슨 《책임총리제》니, 《책임장관제》 니 하며 수다를 떨었으나 실지 로는 남의 의견을 조금도 듣지 않는 독재적인 통치방식에 매달 리고있다. 집권후 현재까지 진 행된 30여차례의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들에서 매번 일방적으로 졸개들을 몰아댄 사 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독단적인 통치방식을 알고도 남음이 있 다 부하들이 자기와 조근이라 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독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즉시에 면박을 주는것도 그의 특기라고 한다. 더우기 《대북정책》과 관 련하여서는 《이것은 내 전공》이 라고 하면서 마치 북남관계의 대가나 되는듯이 행세하고 대결 정책을 무작정 시행하라고 다 그어대고있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분위기가 최근 다 망가지고 북남관계가 순식간에 얼어든것도 그 무슨 《신뢰》와 《원칙》타령을 념불외우듯 하며 대결정책을 고집한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에 따른것이다. 얼 마전 괴뢰통일부가 력사적인 10.4선언의 핵심내용을 다 빼버리고 《제2차 남북관계발 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확정한 것도 그의 굳어진 대결관념의 뚜렷한 발로이다. 지금 괴뢰공 무원들속에서는 현 집권자에 대해 《일하겠다는 사람은 내보 내고 나가겠다는 사람은 막아 서고 무능한 사람은 끼고도는 형국》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분분하다고 한다.

남조선괴뢰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후 청와대중심 의 통치지휘체계를 만들고 무자 비한 독단과 전횡으로 자기 의 사를 내리먹이였다. 그 대표적 표현이 바로 사회 각계의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 월초 《유신》잔당의 대표적인물 인 늙다리 김기춘을 청와대 비 서실장자리에 올려앉힌 사실이 다. 그로 말하면 집권자의 최측 근모임인 《7인회》의 핵심으로 서 알면녹은 《유시허법》조작에 도 적극 관여한 인물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당시 《대 통령선거》를 보수세력에게 유리 하게 끌고갈 음모를 꾸민바 있 는 모략군이다. 때문에 가뜩이 나 《정보원대선개입사건》으로 정치혼란이 심화되는 때에 과거 의 대표적인 《대선개입사건》의 주모자인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 실장으로 등용하는것은 《도무지 리해할수 없다. 》는 비난의 목소 리가 꼬리를 물었다. 괴뢰집권 자가 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그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올려 앉힌것을 놓고 남조선언론들은 《독판치기의 전형》이라고 조소 를 퍼부었다.

김기춘의 등용이후 남조선에 서는 통합진보당의 그 무슨 《내 기부터 여러가지 중요문제들을

란음모사건》이라는것이 터져나 오고 괴뢰감사원 원장과 검찰총 장 채동욱이 사퇴하는 사건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이어 현 집권 자의 측근심복으로서 그의 정책 에 대한 리해가 누구보다 깊다 고 하던 괴뢰보건복지부 장관까 지 《청와대의 지나친 간섭》으로 《장관을 해먹기가 힘들다.》고 여기저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진사퇴로 항거해나섰다. 김기춘이 청와대의 실권을 장 악한 이후 현 괴뢰정권의 주역 으로 자처하던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마저 골방에 들어박혀 집 권자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고있

는 형편이다. 이런 속에 현 괴뢰집권자의 《선거》공약포기와 타산없는 정 책람발 등으로 집권층내부의 갈 등은 더해지고있다. 혀 집권자 가 재벌들의 압력에 못이겨 그 토록 민심을 유혹하던 《경제민 주화》공약을 《경제활성화》로 수 정하고 《기초년금제도입》공약을 재정난을 구실로 헌신짝처럼 차 던지자 그와 관련된 괴뢰행정기 구들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극도 에 달하였다. 그런가 하면 리명 박역도의 4대강사업과 《정보원 대선개입사건》등과 관련한 괴 뢰집권층의 내부갈등이 청와대 와 정보원, 법무부를 한편으로 하고 감사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을 다른 편으로 하는 패싸움 양상으로 치닫고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암투도 심상치 않다. 현 집권자 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초

전 통일위원장을 구속기소 괴뢰전주지방검찰청이 24일 여당과 토의도 없이 제멋대로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전국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나 해 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전북 주는 식으로 《새누리당》을 무시 지부 전 통일위원장을 구속기소 해왔다. 또한 《새누리당》이 제 안한 집권자와 여야당대표들의 3자회담을 원내대표까지 포함

한 5자회담으로 뒤집어놓아 여

당의 체면을 납작하게 만들어놓

기도 했다. 더우기 현 집권자가

《새누리당》내부의 반발에도 불

구하고 정치자금횡령죄로 감옥

살이까지 한 부패정치인인 전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을 《국

회의원 보충선거》후보로 내세우

자 격분한 일부 여당인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변해나섰으

며 또 일부는 무소속출마를 시

사하는 등 모순은 극도에 달하

고있다. 지어 친박계의 핵심인

물이라고 하던 《새누리당》의원

류승민은 얼마저 《국정감사》에

서 《대통령선거》때 한 약속을

뒤집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다시 연기하려 하는 현 집권자

에게 사과하라고 정면공격을 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정치는 없고 통치뿐인 독선적

인 운영방식으로 집권층내부의

암투와 대립은 핵분렬직전상태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은지 불과 반년 남짓한 사이

에 집권층내부의 모순과 알륵이

이처럼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

것은 그가 《유신》독재자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고있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것이 남조

본사기자 리효진

선민심의 일치한 주장이다.

에 놓여있다. 》고 평하고있다.

이댔다.

파쑈검찰은 그가 인터네트에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동조하 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리 적표현물》들을 가지고있었다고 하면서 《정보원과 경찰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엄정대처》 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파쑈검찰 전교조 전복지부

남조선괴뢰패당은 진보세력 에 대한 파쑈탄압에 열을 올리 면서 전교조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패당의 탄압소동

24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피 뢰패당의 탄압소동이 날로 악 랄해지고있다.

괴뢰수원지방검찰청은 《내란 음모》와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하였다.

괴뢰패당은 그들이 그 무슨 비밀모임을 가지고 《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방 안》을 협의하였다고 걸고들며 탄압의 날을 세우고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남조선강점 미군철수, 남조선 미국동맹해체 등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고 피대를 돋구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과 거 청 산 0

최근 일본당국자가 유엔총회 에서 일반토론연설을 하면서 녀 성이 빚을 뿌리는 사회를 만들 겠다는 소리를 하였다. 그는 이 것을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않겠 다.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중 지되지 않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물심량면 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 끼지 않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 에서 녀성들에 대한 범죄가 골 치거리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그 의 연설이 진실성이 있는것이라 면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것이 다. 그런데 일본당국자의 연설 은 국제사회의 쓰거운 조소만을 자아냈다.

자금문제로 녀성들에 대한 성 폭행을 막겠다는 소리가 어처구 니가 없어서인가, 그때문만이 아닌것 같다.

녀성들에 대한 일본당국자들 의 비뚤어진 관점은 국제사회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일본에서 녀성들은 한갖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되고있다. 2007년 1월 일본의 후생로 동상이란자가 한 소리이다. 도 덕적으로 저렬하고 몰상식한 이 러한 망발은 일본의 어두운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세계경제연단이 발표한 20

1 1 년판 《남녀격차보고서》를 보자. 여러 나라 녀성들의 지위 를 경제, 교육, 정치, 건강분야로 나누어 분석종합한 이 보고서에 는 일본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들가운데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녀 성천시, 녀성차별이 얼마나 우심 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녀성천시, 녀성차별은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현 상으로 되고있지만 일본처럼 녀 성의 존엄을 혹심하게 짓밟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인신매매업자들의 눈

길을 끄는 매력있는 곳으로 되 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 본에는 다른 나라 녀성들을 끌 어다가 성노예생활을 강요하는 인신매매범죄조직들이 수두룩 하다고 한다. 일본의 이름난 음 식점들에도 접대원의 명목으로 끌려와 《성봉사》를 강요당하며 치욕스러운 노예살이를 하는 외 국녀성들이 수다하다. 녀성매매 의 《주요목적지》로 되고있는 일 본에서는 무용수선발, 료리사채 용, 미용사모집 등 그럴듯 한 직 업광고들에 속아 섬나라에 끌려 온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 카, 동유럽출신의 수많은 녀성 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고있 다. 그들은 일본의 《성산업》경

영주들에게 팔린 순간부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잃고 갖은 학대 와 멸시속에 성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변태적인 성욕자들의 시 달림을 받는것도 헐치 않은데다 가 《주인》들의 학대 또한 가혹 하기 그지없다. 만일 반항했다 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야 만 하는것이 그들의 기막힌 운 명이다.

오늘 일본사회에 만연되고있 는 극심한 녀성차별현상은 그 뿌리를 과거에 두고있다.지난 날 일제는 침략과 전쟁에 미쳐 날뛰면서 10대의 철부지소녀 로부터 처녀들은 물론 유부녀 에 이르기까지 수십만명에 달 하는 다른 나라 녀성들을 일본 군의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인권과 정조 를 마구 짓밟고 생명까지 무참

하게 앗아갔다. 국제사회는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를 20세기의 가장 대표적 인 인권유린행위들중의 하나로 락인하고 그에 대한 력사적책임 을 일본정부가 인정할것과 후대 들에게 그러한 범죄행위들에 대 해 알려줄것을 권고하고있다. 특 대형반인륜죄악인 일제의 성노 예범죄청산문제가 일본의 법적, 도덕적책임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일제 의 과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

서고있다. 일본의 극우익정객들은 조선녀 성들이 일제에 의해 일본군성노 들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예로 끌려간것을 놓고 《자원적인 것》이라느니, 부모들이 《돈을 바 라고 팔아먹은것》이라느니 하는 경악할 망발들을 늘어놓았다. 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나서서

《일본군성적노예문제》라는 표현 에 크게 잘못된것이 있다,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는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 종적으로 해결된것이다라고 생 억지를 부리고있다. 지난 3월 8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타난 일본집권 자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조 용한 마당에서 력사가나 전문가 들이 론의해야 한다. 》. 《이 문 제를 정치문제,외교문제로 만 들어서는 안된다. 》고 지껄여댔 다. 현 일본당국자는 이전 집권 시기에 일본군성노예범죄만행 을 전면부정하면서 절대로 사죄 를 하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리 다가 내외의 압력과 항거에 못 이겨 NHKTV화면에 나타나 성 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한 전 내각관방장관 고노의 담화를 계 승하는것은 일본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그 보도는 철저하게 잘 죄는커녕 그것을 정당화해나 못된것이라고 뇌까리고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녀성들의 국 제적명절에 이런 추태를 부린자 극우익정객으로 알려진 오사 까시장 하시모또가 일본군성노 예문제와 판련하여 군인들에게 《위안부》가 필요하였다고 줴친 것, 이전 도꾜도 지사였던 이시 하라가 《군대와 매춘은 붙어다 니는 법》이라느니, 일본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옛 날부터 존재하였다느니, 발언이 불러 비법적인 정탐행위에 항의 기본적으로 잘못된것이 없다느

니 뭐니 하고 그것을 두둔한것 등은 얼마전에 있은 일이다. 일본에서의 녀성천시, 녀성차 별현상은 이처럼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굳어진 일본특유의 녀성천시풍조에 그 뿌리를 두

고있다.

오늘 미국 각지에 세워진 일 본군《위안부》추모비들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적만행을 만 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솔직하

게 반성하고 청산문제에서 성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 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 출 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 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일본당국자들은 과거청산이 없는 미래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리현도

일본수상의 그릇된 행위를 규탄

일본수상의 그릇된 행위를 규탄 하는 글을 실었다.

중국의《인민일보》18일부가

일본수상이 얼마전 야스구니

프랑스가 21일 미국의 정탐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이 나라 공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도청 및 감시행위를 감행한 사실이 폭로 된것과 관련하여 프랑스외무상 은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를 표시하였다.

진쟈에 제물을 보낸것과 관련하 여 신문은 《자기가 참배한것과 성질은 똑같다. 》고 까밝혔다.

프랑스 미국의 정탑행위에 항의 이 나라 내무상은 미국이 지

를 정면에서 때리는것은 전 적으로 필요한것이라고 하면 서 일본의 잘못된 력사관과 군국주의사상은 아시아의 평 화에 있어서 위협으로 된다 신문은 야스구니진쟈참배 고 강조하였다.

난하였다.

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 기간에만도 자기 나라 공민 들을 상대로 7 030만건의 전 화도청 및 감시행위를 벌린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절대 로 용납될수 없는것이라고 비

한편 프랑스정부는 미국이 유 럽나라들을 대상으로 불법무도 한 정탐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 한 문제를 곧 있게 될 유럽동맹 수뇌자회의에 상정시킬것이라 고 밝혔다.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 요구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부위 원장이 최근 한 발언에서 미 국의 반꾸바봉쇄철회를 요구 하였다.

안이나 꾸바를 반대하여 비인간 적이며 비법적인 봉쇄를 실시하 여 이 나라 인민들에게 막대한

그는 미국이 지난 50여년동

피해를 주면서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당장 꾸바에 대한 봉쇄를 철회하도록 유럽동맹이 압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마께도니아가 21일 량국관계를 강화하고 모든 분야 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촉진해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와 체스꼬 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무역협 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으 며 사법, 군사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할데 관한 여러건의 문건에 조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